

#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 연구

책임 연구자: 노 성 덕

정 재 우

공동 연구자: 배 희 분

이 미 현

김 태 성

김 경 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 184

##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 연구

인쇄 : 2015년 12월

발행 : 2015년 12월

저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발행인 : 권 승

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24 / F. (051)662-3007

<http://www.kyci.or.kr>

인쇄처 : (주)다찬

(비매품)

ISBN 978-89-8234-577-7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 연구 / 책임연구자:  
노성덕, 정재우 ; 공동연구자: 배희분, 이미현, 김태성, 김  
경희. -- 부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권말부록: 청소년동반자 설문조사(예비조사) 등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234-577-7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 (세트) 94330

청소년 상담[靑少年相談]

334.3-KDG6

362.7-DDC23

CIP2015033388

# 간행사

촉촉한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 구축 및 운영에 핵심적인 인적자원인 청소년동반자는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2005년 시범 운영 이후 지난 10년간 계속 확대되어, 2015년 현재 전국 211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044명의 청소년동반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출, 자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동반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변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부모는 청소년에게 그 누구보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상담에 대한 청소년동반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동반자와 실제 상담을 받았던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반자 상담 및 위기청소년 상담의 특징 등 선행연구 분석결과와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를 근거로, 현장 활용성이 높은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선생님들, 그리고 질적 연구에 참여해주신 청소년동반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배희분 교수님과 본원의 연구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개입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연구물이 우리나라 청소년과 부모들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권승 권 승

# 초 록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 전문가로서 2005년 시범사업 출범 이후, 위기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 개입을 해오고 있다. 청소년동반자가 만나는 대상청소년의 경우 이혼, 한부모 가정 등 해체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자살, 학교폭력, 가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고위기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개입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청소년동반자들의 부모상담에 있어 체계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의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청소년동반자 상담 특징, 위기청소년의 특징과 부모개입의 특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부모상담 개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동반자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를 통해 청소년동반자의 부모상담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였고,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비롯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부모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동반자의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향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동반자들은 일반 청소년상담과 비교하여 청소년동반자 상담에서의 부모상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가 경험하는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을 청소년동반자 변인, 부모 변인, 환경 변인으로 범주화하여 살펴 본 결과, 청소년동반자 변인으로는 상담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개입유능감에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변인으로는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 상담 필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부족과 같은 부모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변인으로는 회기의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에 따라 청소년동반자가 경험하는 부모상담의 어려움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30대 청소년동반자가 40-50대에 비해, 기혼에 비해 미혼 또는 자녀가 없는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동반자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결과, 부모개입은 청소년 상담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등 부모상담 여부에 따라 청소년 상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연령이 어릴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부모 동기가 낮을수록 부모 개입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청소년들의 위험수준은 높으나 자원이 부족한 사례 특성, 부모의 낙담과 포기, 부모의 개인적 어려움, 제한된 회기, 전문 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부모상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과 신뢰, 성공적인 첫 면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훈련, 지역사회 연계 등이 부모상담 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비협조적인 부모를 상담 장면으로 이끌어 청소년 자녀, 부모, 상담자가 합심하여 부모상담을 하는 경우가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었으며, 부모가 변화되어야 청소년상담이 효과적임에 동의하였다. 특히, 부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및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갖게 될 때, 구체적인 양육기술 학습, 관심과 지속적인 부모상담을 통한 감동 등이 기억에 남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와 위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동반자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프로토콜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 1장 부모 개입 시작하기'에서는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 개입 준비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 2장 부모개입하기'에서는 부모개입을 부모상담, 부모코칭, 부모교육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제시하였다. '제 3장 특수문제 이해하기'에서는 가족 유형과 위기청소년 유형을 구분하여 부모개입 시 활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4장 어려운 상황 대처하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청소년동반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 활용자료'에서는 청소년동반자가 부모개입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시 활용 가능한 프로토콜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동반자 상담 특성을 반영한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개입 수준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장기 연구의 일부로 추후 현장 활용 및 개입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I. 서 론 |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과제 .....4

## II. 이론적 배경 | 5

- 1. 부모상담의 정의 .....5
- 2. 부모상담의 내용과 방법 .....6
  - 1) 부모상담의 필요성 및 어려움 .....6
  - 2) 부모상담의 목표 및 전략 .....8
  - 3) 부모상담의 내용 및 방법 .....10
- 3. 위기청소년상담에서의 부모상담 .....17
  - 1) 청소년상담에서의 부모상담의 특징 .....17
  - 2) 위기청소년 부모상담 .....19
- 4. 청소년동반자 상담 .....29
  - 1)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의미 .....29
  - 2)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의 현실 .....29
  - 3) 청소년동반자 개입의 특징 .....31

## III. 연구1.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부모상담의 어려움에 관한 조사연구

### | 34

- 1. 연구방법 .....34
  - 1) 연구대상 .....34
  - 2) 연구도구 .....35

2. 연구절차 .....	36
1) 문헌연구 및 개방형 질문지 구성 .....	36
2) 설문지 제작 및 협조공문 발송 .....	36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용 정보망을 통한 조사 실시 .....	36
4) 조사결과 코딩 및 분석 .....	37
3. 자료분석 .....	37
4. 연구결과 .....	37
1)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 .....	37
2) 부모상담의 중요성 및 진행방식 .....	40
3)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	41
4) 청소년동반자 변인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	47

#### IV. 연구2.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 연구 | 55

1. 연구방법 .....	55
2. 연구절차 .....	55
1) 청소년동반자 및 대상청소년 부모 포커스그룹인터뷰 실시 .....	55
2)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구성 .....	55
3) 현장전문가 자문 평가 .....	56
3. 연구결과 .....	56
1) 청소년동반자 및 대상청소년 부모 포커스그룹인터뷰 .....	56
2)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구성 .....	71
3)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 .....	74

**V. 요약 및 논의 | 83**

1. 연구의 요약 .....83  
2. 논의 및 제언 .....85

**| 참고문헌 \_ 88**

**| 부록 \_ 99**

[부록 1] 청소년동반자 대상 예비조사 설문지 .....101  
[부록 2] 청소년동반자 대상 부모상담 설문지 .....102  
[부록 3] FGI 질문지(청소년동반자용) .....110  
[부록 4] FGI 질문지(부모용) .....111

**| Abstract \_ 112**



# 표목차

표 II-1. 부모교육 선행연구 (외국사례) .....	12
표 II-2. 부모교육 선행연구 (국내사례) .....	14
표 II-3. 대상청소년 문제 상태 .....	30
표 II-4. 대상청소년에 대한 부모관심의 정도 .....	30
표 II-5. 대상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협조 정도 .....	31
표 III-1. 청소년동반자 일반적 특성 .....	34
표 III-2.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 .....	38
표 III-3. 청소년동반자 활동지역 .....	39
표 III-4. 청소년동반자 활동센터 .....	39
표 III-5. 일반 청소년상담에 비해 청소년동반자 상담에서의 부모상담 중요성 .....	40
표 III-6. 부모상담 주된 진행방식 .....	40
표 III-7. 부모(주양육자)상담의 어려움 .....	41
표 III-8. 부모상담의 주요 어려움 (청소년동반자 변인) .....	43
표 III-9. 부모상담의 주요 어려움 (부모 변인) .....	44
표 III-10. 부모상담의 주요 어려움 (환경 변인) .....	46
표 III-11. 청소년동반자의 연령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	47
표 III-12. 청소년동반자의 경력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	50
표 III-13. 청소년동반자의 결혼여부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	51
표 III-14. 청소년동반자의 자녀유무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	53
표 III-15. 청소년동반자의 전공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	54
표 IV-1.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정보 (청소년동반자) .....	56
표 IV-2.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정보 (부모) .....	57
표 IV-3. 청소년동반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	57
표 IV-4. 부모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	68
표 IV-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프로토콜 개발 시 고려사항 .....	72

표 IV-6.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에 따른 프로토콜 개발 고려사항 .....	73
표 IV-7. 부모상담 프로토콜의 개괄 .....	75
표 IV-8. 부모상담 프로토콜 내용 평가 결과 .....	78
표 IV-9. 부모상담 프로토콜 현장활용도 평가 결과 .....	79
표 IV-10. 부모상담 프로토콜 내용에 대한 세부의견 .....	79
표 IV-11. 부모상담 프로토콜 내용 전반에 대한 의견 .....	81

# 그림목차

그림 IV-1. 부모개입 절차 .....	77
------------------------	----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를 상담하는 것은 청소년동반자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부모를 상담하는 것은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짧은 역사,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 청소년동반자 대상청소년 가정의 현실적 여건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아정체감 혼란, 정서조절의 어려움,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된다(박진우, 2015; 한상철, 2008).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와 혼란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에 부딪힐 수 있다. 정부의 청소년 현황 분석 결과에서는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자살, 비행, 정신건강 문제 등 위기청소년을 약 87만 여명으로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의 변화와 혼란이 반영된 것이며 동시에 청소년기 변화와 혼란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정유정, 2011).

이에 따라, 청소년의 위기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 정책이 현재 시행중이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인터넷치유캠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쉼터운영 지원사업, 청소년동반자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 이러한 정책사업은 위기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하게 되면 성인기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강석영, 이창호, 이동훈, 2014; 권해수, 조규필, 김범구, 허진석, 윤현선, 2008; 김동일, 최수미, 2008; 배주미, 이은경, 허지은, 2009; 양종국, 김충기, 2002; 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이정희, 2009; 정재우, 2013; 최해연, 곽윤영, 김은영, 배주미, 2011; 홍나미, 2013)들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위기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방 및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들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 양육 태도, 가정환경 등과 같은 부모변인 등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구본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남상인, 안현의, 주영아, 한동우, 2005; 김동일, 최수미, 2009; 김형수, 최한나, 2009; 류진아, 2007; Erk, 2008; Rapp-Paglicci, Dulmus, & Wodarski, 200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의 긍정적 참여나 감독이 청소년의 위기를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정자, 2005; 김헌수, 김현실, 2000). 이용택과 이은경(2012)은 부모의 긍정적인 관심과 지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균(2009)의 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비행행동을 좀 더 수월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2005)은 부모 지지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빈곤가정 청소년들이 폭력행동 등 외현화 문제와 우울 등 내현화 문제를 겪을 때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문제해결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 부모의 정신건강 등 부모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은이와 오경자(2014) 역시 부모 정신병리, 가족 역기능 등의 위험요인이 많은 환경이 청소년에게 정서문제와 행동문제 등을 야기하여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 위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비행, 우울 등 청소년문제행동이 부모의 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담진행 시 부모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청소년상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Nicoll(1999)은 청소년만을 상담했을 때 문제해결까지 도달하는 데 개인상담에서는 30시간이 걸렸던 것이 부모 및 가족 상담으로 단 5시간 만에 성공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행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부모의 돌봄 기술을 증진시키고 부모의 문제를 상담하며 그 외의 환경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었다고 Lipsey와 Wilson(1998)은 보고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청소년 문제해결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나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위기를 겪는 청소년의 적응과 문제 해결에 부모의 개인적 특성 혹은 양육 태도 등이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개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상담 영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모에 대한 개입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위기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청소년 내담자와 부모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매우 효과적인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다(송원영, 송미경, 노성덕, 이대형, 김호정, 박선경, 김현진, 2011).

특히 청소년동반자에게 배정되는 내담자군은 자살, 성폭력, 은둔형 외톨이, 가출,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가·피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들이다. 이런 문제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가족이 구조적 결핍상태이거나 기능적으로 역기능적이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권현용, 2013; 김동일, 최수미, 2008; 노성덕, 이대형, 2011; 박소영, 2014; 박한샘, 고은영, 2009; 서선진, 송원영, 2012; 오경자, 이기학, 지승희,

2009; 임고은, 이동귀, 2014; 장정연, 1998 ; 정재우, 2013; 한상철, 2008; 한상임, 2010; 고스계 유코, 201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3)에서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가족구성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사별·별거·재혼 등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이 38.9%, 이혼 및 미혼모, 재구성 가정 등의 비율이 33.9%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동반자 청소년들의 가정 형태에서 이혼가정 또는 이혼 후 재혼 등 재구성 가정이 40.3%로 나타나, 청소년동반자에 의뢰된 청소년들의 경우 이혼 등 해체가정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황순길, 손재환, 전연진, 송미경, 김태성, 명재신, 양민정, 허미경, 김남희, 201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가정 등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를 상담에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그러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대상 청소년의 경우, 부모를 상담에 참여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상담에 참여시켰을 경우에도 청소년과 별도로 회기를 진행하거나 가족상담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 역시도 한계가 많다. 왜냐하면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가정은 별거, 이혼, 재구성 가정인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부모가 알콜중독, 가정폭력, 자녀 양육에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 빈곤으로 심야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년동반자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황순길 등(2014)이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부모상담의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약 75%가 부모상담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 부모의 영향이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없으며,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특성 및 사례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은 실제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따른 체계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찾아가는 상담전문가 모형을 모색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인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상담에 대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프로토콜(protocol)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골격을 제시하는 실시요강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진행 시, 사례의 특성이나 개입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뉴얼(manual)처럼 고정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렵다. 프로토콜은 고정화된 프로그램인 매뉴얼과는 다소 차별화된 개념으로,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부모상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매뉴얼보다는 프로토콜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청소년동반자 개입의 질을 일정 수준 제고시키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이 반영된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들이 경험하는 부모상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한다.

## 2. 연구과제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 2)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여 제시한다.
- 3) 청소년동반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상담의 정의

부모상담을 정의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Parents Consultation’으로서의 부모상담이고, 다른 하나는 ‘Parents Counseling’으로서의 부모상담이다. 전자는 상담 과정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청소년을 도와줄 것인가에 관련된 상담자와 부모간의 이해 증진과 협조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작업이다. 후자는 상담을 받는 청소년의 부모로서 부모 역할과 부모 역할에서 겪는 고통, 성격과 정서문제 등 주로 부모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는 것을 의미한다(전혜리, 2010; McGuire, & McGuire, 2008).

이전 연구들에서는 부모상담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밝히고 있다. 박자영(2009)은 부모상담에 대해 청소년 상담에 동반되는 부모와의 특별한 만남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개선하고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모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상담을 통해 상담자는 전문적 조언과 정보를 교환하고 부모가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적 목적을 가지는 동시에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는 치료적 가치를 구현하게 된다고 하였다(박자영, 2009). ‘부모상담’은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부모역할 및 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접근으로서, 부모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주로 다루게 된다. 이상복(2000)은 부모상담에 대해 상담자가 청소년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부모 또는 가족을 만나 상담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부모로 하여금 청소년 자녀의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도록 하고,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상담과 유사하게 사용하는 용어로 부모교육, 부모코칭 등이 있다.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돌이켜 검토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말한다(이재연, 김경희, 1989). 부모교육은 자녀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피교육자가 되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과 태도,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김현주, 손은경, 신혜영, 2005). 이재택(2013)은 부모교육에 대해 부모의 영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하는 목적으로 부모로서 효율적인 양육태도 및 방법을 지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

해 부모교육은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부모코칭은 참여자들이 청소년의 발달과 기질 등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집단 내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김차미, 2012). 부모코칭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개개인이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양육의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지지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이소희, 2006). 청소년과 부모는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들 자신의 내부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내적 자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 제고와 적절한 기술의 통합이 매우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이 바로 부모코칭이라는 것이다(박수선, 강기정, 2008 재인용)

위의 여러 연구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부모상담이란 부모교육과 부모코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청소년 자녀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태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발달단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면서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룸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순기능을 강화시키는 개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부모상담의 내용과 방법

### 1) 부모상담의 필요성 및 어려움

부모상담은 대상청소년과의 상담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며 내담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돕는가에 우선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부모 또는 가족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다양한 관계와 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심영숙, 2012).

청소년상담에서 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부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청소년은 상담시간 이외의 많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고, 부모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자,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또한 부모는 상담의 시작과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상담에 필수적인 중요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자영, 2009; Erk, 2008). 그러므로 부모가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효과적인 상담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부모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상담이 중요한 요소이고 상담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김광웅, 김화란, 2006; 김광웅, 2009; 기채영, 2006; 신숙재, 한정원, 2000; 신현정, 2008; 유미숙, 1997; 이혜자, 2008; 주선영, 김광웅, 2005; 최명선,

2005; 최선미, 2003; Greenwald, 2002; James, 1997; Knell, 1993; Kottman, 1995).

특히 Greenwald(2002)는 부모가 상담에 협조하면 청소년상담의 효과가 크다고 하였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청소년과 전문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심지어 수십년 전에 이미 Arnold(1978)는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부모는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상담자라고 제시하며, 상담자는 부모와 동맹을 맺고 부모에게 상담의 보조자 역할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Schaefer(2006)는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청소년 상담에서 부모상담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하였다. 보통 부모들은 자신들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지 않지만, 부모들의 도움과 공감적인 지지 없이는 자녀가 완전히 상담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상담자에게 전해지는 긍정적인 전이가 필수적이며,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와 작업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하였다(전혜리, 2010).

최명선과 김광웅(2005)은 청소년상담성가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을 상담하는데 있어 부모상담을 병행하는 것은 청소년상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Kristin(2002)은 청소년상담에서는 부모-상담자간의 작업동맹이 청소년의 상담과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상담자는 부모상담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얻게되고 이는 상담자-청소년내담자의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신현정(2008)은 청소년상담에서 어머니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변화요인은 '연쇄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즉, 청소년상담의 효과가 부모의 변화를 촉진하고, 부모상담을 통한 어머니의 변화는 청소년의 변화를 불러들였다고 하였다.

기채영(2006)은 부모상담을 통한 상담성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첫째 부모는 상담자로부터 청소년의 특성이나 발달, 욕구 및 어려움의 원인과 문제 행동의 특성에 대한 조인과 정보를 듣고, 청소년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됨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 역할에 대한 교화적인 방법을 습득하고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감소되어 관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담기법을 훈련 받아 가정에서 활용함으로써 상담 조력적 효과가 촉진된다고 하였다. 넷째, 부모는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지지와 공감을 받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청소년 자녀를 대하는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혜리(2010)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부모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청소년 상담과 부모상담이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모의 변화는 자녀에게 적절한 환경의 변화라는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속시키며, 자녀의 변화 역시 부모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에서 부모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부모상담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청소년동반자 사업에서 부모를 상담하기 위한 모델을 필요로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상담에서 행해지는 부모상담의 어려움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다. 김광웅(2009)은 부모의 심리적 문제, 정신병리,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응, 상담자의 성인상담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함, 상담자의 역전이, 상담시간 부족, 부모의 낮은 이해수준 및 통찰부족, 미혼 상담자 또는 양육경험 부재, 부모상담 공간 부족 등을 부모상담 실태조사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

김광웅(2009)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상담에서 상담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부모의 정신병리나 비협조적인 태도다. 이런 부모는 상담을 거부하거나, 화를 내거나,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숨기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분노를 표출하거나 저항적인 부모와 상담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부모를 상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모들을 상담할 때는 부모의 감정을 반영해주어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등 부모의 저항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상담 관계를 형성해야 상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McGuire, & McGuire, 2008).

박자영(2009)에 의하면 상담자들은 상담 경력에 따라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 정도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심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부모를 참여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면서까지 희생하고, 부모가 상담을 종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상담자들의 불안에 대하여 이장호(2005)는 상담경험과 숙련성이 상담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운주와 김계현(2002)은 상담경력이 쌓일수록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상담전략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상담자의 역전이나 부모의 저항을 다루기가 더 용이해진다고 하였다. Bernard와 Goodyear(2009)는 유능한 전문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으로 전문적 교육을 받는 수퍼비전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이는 수퍼바이저나 동료 상담자 등과 연락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 등이 있다. 다른 전문가로부터의 조언은 상담자와 저항적인 부모사이의 역동에 대한 통찰을 얻고 상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2) 부모상담의 목표 및 전략

청소년상담과정에서 부모상담은 초기, 중기, 종결에 따라 초점이 달라진다. 초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중기는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한 탐색과 청소년의 문제를 부모가 다룰 수 있게 훈련시키기는 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종결로 가면 부모는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부모-자녀 관계가 개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부모상담도 대상청소년의 상담과정의 흐름과 같아야 청소년상담의 효과도 증대될 뿐 아니라 부모자

너 관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유미숙, 1997).

박자영(2009)은 부모상담에서는 먼저 누구를 내담자로 볼 것인가를 탐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상담의 경우,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다고 내방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자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내담자로 보더라도 부모가 자신을 상담받아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서서히 다가가야 한다. 부모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담자가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면 부모는 청소년의 상담까지 중단하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모를 서서히 준비시켜 상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부모를 내담자로 볼 경우, 부모상담 시간을 별도로 갖고 부모상담을 통해 갈등의 시기, 원인, 결과, 갈등이 일어날 때의 감정상태, 해결방법 등을 찾아보도록 도와준다. 부모의 대인관계패턴과 부모의 어릴 적 경험과의 관계들을 살펴보면 서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알고 해결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McGuire와 McGuire(2008)의 연구결과도 박자영(2009)의 주장과 상당한 부분에서 비슷함을 발견할 수 있다. McGuire와 McGuire(2008)는 부모상담을 실시할 때 상담을 받는 내담자(부모)의 조력에 초점을 두기보다 상담자가 만나고 있는 내담자(청소년)의 복지증진이 가장 중요한 상담의 목표가 된다고 보았다. 부모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크거나 부모 성격 특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서, 부모에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인상담을 의뢰하거나 병원에 의뢰하여 약물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시하였다. 노성덕과 이대형(2011) 역시도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부모상담은 상담자가 만나고 있는 청소년 부모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자녀인 청소년의 복지 증진이 중요한 상담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즉, 상담자가 현재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부모) 외의 다른 인물(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돕는 것이 청소년 부모상담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상담의 목표는 첫째, 청소년 자녀의 바람직한 변화 둘째, 청소년의 변화를 촉진하고 조력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 향상, 셋째,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개선, 넷째, 청소년 부모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만족감 증진 등 부모 자신의 긍정적 변화 등의 일부 혹은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부모상담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박자영(2009)은 부모의 욕구와 갈등, 감정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상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내담 청소년의 부모도 청소년 못지않게 상담자로부터 인정받고 사랑 받고 싶어하나, 부모는 이러한 욕구를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상담시 상담자는 청소년의 변화에 대한 공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담자는 부모의 변화에 대해 반영해주고 부모의 노력에 대해 지지해주며 부모가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상담을 위한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부모는 상담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

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합의된 상담의 목표, 예측되는 변화와 문제점 등에 대해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특히 기관마다 절차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기관의 특징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부모는 청소년의 상담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한다. 이런 욕구를 다루기 위해서는 상담 회수, 시간, 비용, 부모상담 여부, 청소년이 상담할 동안에 부모는 어디에서 기다리며 그 시간동안 무엇을 할지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가 청소년에게 바라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상담과정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부모와 상담자 간의 합의과정이 필요하다(신숙재, 한정원, 2000; 유미숙, 1997). 더하여 목표와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목표 및 전략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과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박자영(2009)의 연구는 상담 장면에서 부모상담의 목표설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성덕과 이대형(2011)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뿐 아니라 청소년이 속한 가족에 대한 개입도 상담목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부모상담을 하여 청소년의 문제해결과 발달촉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족의 특징을 숙지하고,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양육방식과 같은 가정 내의 구조적 기능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의 문제가 가족체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역기능적이거나 취약한 가족이 구조나 관계를 건강하고 기능적인 구조와 관계로 발달시켜 나가면서 문제를 다루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3) 부모상담의 내용 및 방법

상담자에 따라 부모상담의 개입은 다를 수 있다. 어떤 상담자는 정신역동적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상담자는 가족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구성원의 참여를 중요시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가족 참여에 대한 요청을 적게 할 수도 있다(전혜리, 2010; Cates, Paone, Packman, & Margolis, 2006). 그러나 부모상담의 구조를 정할 때는 가족들의 문화요인이 중요하며, 내담자의 가치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Kottman(2003)은 청소년상담에서 부모의 참여를 강조하였는데, 특히 부모의 변화, 즉 대화법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으며, 매 회기마다 20분 내지 30분을 만나는 것을 전형적이라 하였다. Landreth(2002)와 Webb(1999)은 상담자에 따라 부모상담의 방법이 다양한데 어떤 상담자는 한 달에 한번 만나고, 다른 상담자는 필요에 따라 요청하거나 전화로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각 상담자, 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전혜리, 2010). O'Connor(2000)는 상담 전이나 후에 부모를 만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았는데, 상담 전에 만나면 내담자

가 부모와 상담자와 동맹을 맺었다고 여겨 상담자가 부모 편을 들것이라 여길 우려가 있고, 상담 후에 만나면 내담자가 비밀 보장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상담중에 부모로부터 개인상담에 대해 요청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 개인상담 진행 여부는 내담자와 부모의 관계를 살펴보고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며 이는 상담자 스스로의 판단과 지각능력에 달려있다고 하였다(전혜리, 2010).

Schaefer(2006)는 3-4회기마다 부모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부모들에게 상담 과정을 설명하며 부모들로부터 피드백이나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된다. 그에 의하면 별도 회기로 운영하는 부모상담은 청소년 내담자가 듣는 가운데 내담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내담자에 대한 수용과 비밀 유지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부모상담에 대해 부모를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부모 지지, 부모교육, 부모역할, 내담자와의 관계에서의 내적인 변화 등 부모를 위한 '낮은 수준의' 상담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부모상담은 시간이 부족하여 가정 내 혹은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나 상담과정에 대한 설명만 하기도 시간이 모자라, 늘 부모나 상담자 서로가 아쉬워하는 경향이 있다(전혜리, 2010).

전혜리(2010)는 부모상담 전무형, 1~2개월에 한번씩 부모교육 위주 상담형, 정기적인 부모 개별 상담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청소년 상담에서 부모상담을 진행하고, 효과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상담이 전무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고 변화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고 부모들에게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았다. 한편, 상담 후 15분간 부모상담을 1~2개월에 한번씩 따로 시간을 내어 부모와 개별 상담을 한 결과, 부모가 상담을 통해 배우고 통찰한 것들을 실천하려 노력했느냐에 따라 상담의 효과 지속기간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기채영(2006)의 주장과도 일치하였다. 부모 개별 상담을 지속한 유형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문제 인식과 통찰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내담자의 변화와 부모의 변화가 서로 맞물려 상승작용을 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되었고, 부모는 자녀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상담효과가 지속되고 점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한편, 부모상담의 한 방법으로서 부모교육의 목적은 부모와 자녀관계의 개선과 자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부모들의 자기실현을 돕기 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양육방식 등을 점검하고 자녀행동에 대한 이해,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 기능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한다(노성덕, 이대형, 2011). 부모교육은 크게 개별 및 집단 부모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청소년동반자 활동의 경우 방임형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가 많으므로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부모상담이 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방임형의 부모에게는 필요에 따라 부모들에게 유인

가를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부모교육을 할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보다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활용하여 부모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교육내용을 준비하여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교육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듣는 부모의 인지적 통합능력, 실천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을 프린트물로 배포하여 복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노성덕, 이대형, 2011). 부모상담 혹은 집단 부모교육을 주제로 한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APT(Active Parenting Training;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 STEP(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체계적 부모교육 훈련) 등이 있다. 각 연구들은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향상, 부모역할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부모교육 선행연구 (외국사례)

프로그램	개발자·연구자	회기	대상	주요 개입 방안 및 내용	핵심요인
Active Parenting Training (APT)	Michael Popkin	10	만 2~12세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부모되기</li> <li>* 자녀이해하기</li> <li>* 용기 북돋우기</li> <li>* 책임감 개발하기</li> <li>* 협력</li> <li>* 민주적인 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디오를 통한 학습</li> <li>- 다양한 의사소통방법과 상호작용 증대</li> <li>* 교육 내용이 아닌 교육과정에 중점</li> </ul>
Assertive Discipline for parents (주장훈련 이론)	L. Canter, M. Canter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주의적 접근방법에 근거</li> <li>- 당당하게 대화하기</li> <li>- 말을 행동으로 뒷받침하기</li> <li>- 법치정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분명한 훈육의 필요성 인식하기, 자녀의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 습득하기</li> </ul>
National Run-away switch-board	연방 정부의 지정	4	가출 청소년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모듈식 가족상담</li> <li>- 가족의 정의 및 가족구성원의 차이 명료화</li> <li>-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 정의</li> <li>- 청소년이 가진 구성원 역할 강조</li> <li>- 가족체계 내 위기에방법</li> <li>-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연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li> <li>* 청소년의 가족구성원 역할</li> <li>* 가족의 위기 정의 및 예방법</li> <li>*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li> </ul>



프로그램	개발자 · 연구자	회기	대상	주요 개입 방안 및 내용	핵심요인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ET)	T. Gorden	8	유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수준 파악하기</li> <li>* 문제소유 파악하기</li> <li>* 반영적 경청</li> <li>* 나-전달법</li> <li>* 갈등해결하기</li> <li>*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간 갈등 해소</li> <li>* 자녀 스스로 문제 해결능력 배양</li> <li>* 부모-자녀 간 존중</li> </ul>
Parent Strategy (부모전략 프로그램, 부모-자녀 놀이치료)	L. Guerney	10	2-10세 자녀의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적 접근을 이용한 학습</li> <li>* 수퍼비전을 받는 경험</li> <li>*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부모자신들이 배운 것을 가정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수용능력</li> <li>* 자녀들과의 공감적 상호작용 증가</li> <li>* 양육스트레스감소</li> <li>* 아동의 행동문제 감소</li> </ul>
P-Positive Parenting Program (Triple P)	Matthew R. Sanders and colleagues	8	유아기 아동을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가족 환경 조성하기</li> <li>* 자녀들에게 타인과 어울리는 기술 가르치기</li> <li>* 자녀의 문제해동에 대해 긍정적, 일관적, 확고한 태도로 대응하기</li> <li>* 자녀의 긍정적인 태도 격려하기</li> <li>* 자녀와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갖기</li> <li>* 부모로서 나 자신 돌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자기조절력 향상</li> <li>- 자기효능감 향상</li> <li>- 자신감 향상</li> <li>- 자기관리 도구 사용</li> <li>- 개인적 요소 변화 촉진</li> <li>- 스스로 문제해결 촉진</li> </ul>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STEP)	Don Dinkmeyer Sr., Gary D. McKay	9	만 1~6세, 만 6~12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행동 이해</li> <li>* 자녀 이해와 부모 자신의 이해</li> <li>* 격려-자신감과 가치관 길러주기</li> <li>* 의사소통-반영적 경청</li> <li>* 의사소통-대안찾기, 부모의 생각과 느낌의 표현</li> <li>* 책임감 훈육방법</li> <li>* 자연적 · 논리적 결과의 활용</li> <li>* 가족모임</li> <li>* 자신감 개발 및 잠재력 발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간 민주적 관계 형성</li> <li>* 자녀를 존중하는 의사소통방법 습득</li> <li>*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해</li> <li>*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조성</li> </ul>

부모상담 혹은 집단 부모교육을 주제로 한 국내연구를 정리하면 표 II-2와 같다. 각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초기 청소년기, 가출 등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인 혹은 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교류분석, MBTI, 분노조절 등 부모 자신의 이해와 수용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프로그램들도 있다.

표 II-2. 부모교육 선행연구 (국내사례)

프로그램	개발자·연구자	회기	대상	주요 개입 방안 및 내용	핵심요인
MBTI를 활용한 적극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이현림, 류현정, 김지혜 (2007)	10	상담 센터 청소년의 부모 (비교, 통제집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li> <li>* 자녀이해, 자녀 양육관</li> <li>* 자녀의 문제행동</li> <li>* 자녀지도의 기술적 방법</li> <li>* 나와 타인에 대한 성격과 기본 욕구에 대한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타인 이해</li> </ul>
교류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가족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손수향, 배근택, 이영호 (2007)	8	초등 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고그램 체크하기</li> <li>* 구조분석하기</li> <li>* 의사교류분석하기</li> <li>* 스트로크 분석하기</li> <li>* 게임분석하기</li> <li>* 시간 구조화하기</li> <li>* 인생 각본 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사람 간의 의사 거래 내용을 그 시점에서 드러나는 자아상태 분석</li> </ul>
분노 다루기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 사티어변형체계 치료모델을 토대로-	이경미, 이인수 (2013)	8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노에 대한 비밀치적 대처방식 확인을 통한 상호작용의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과 심리 내적 과정에 대한 이해</li> <li>*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li> <li>* 분노를 유발시키는 과정에 대한 이해</li> <li>* 부모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의 영향과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이해</li> <li>* 빙산이론에 의거한 일치적 의사소통 연습, 용서하기, 자기 돌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부정적 분노 감정에 대한 자각과 치유를 통해 분노 해결</li> <li>* 부모·자녀 간의 갈등 해결 및 관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부모역할 수행</li> </ul>
비행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 보호관찰수감명령 대상자의 부모를 중심으로 -	심혜숙, 광미자 (1997)	3	보호 관찰 수강 명령 대상자의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이해</li> <li>* 자아존중감 향상</li> <li>* 양육태도 개선</li> <li>* 의사소통기술 함양</li> <li>* 가족기능에 대한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격유형을 바탕으로 한 자아존중감 향상</li> <li>* 양육태도 개선</li> <li>* 부모-자녀 의사소통 함양</li> <li>* 가족기능</li> </ul>

프로그램	개발자·연구자	회기	대상	주요 개입 방안 및 내용	핵심요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서은주, 이현림 (2008)	12	초등 학교 1,2학년 학생의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 내 안전기지 경험</li> <li>* 애착 경험의 영향 인식</li> <li>* 내적 작동 모델 및 애착행동 전략 재평가 및 수정</li> <li>* 자녀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지각 획득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 민감성 증진</li> <li>* 정서적 반응 향상</li> </ul>
어머니를 위한 상담활용 부모교육(CUPE M) 프로그램의 효과	김진이, 정문자 (2006)	10	만 4, 5세 유아의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형성과 목표설정 : 양육행동과 유아발달에 대한 이해 도모</li> <li>* 부모역할 증진 : 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 촉진, 양육기술의 효과적인 훈련</li> <li>* 종결준비 : 문제해결력 증진, 변화의 확인 및 유지, 또 다른 변화를 위한 방법 모색 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의 부모역할을 지원</li> <li>* 양육스트레스 감소</li> <li>* 부모 유능감 증진</li> <li>* 어머니의 긍정적인 행동 촉진</li> </ul>
위기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출경험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박현진, 송미경, 김은영 (2011)	6	가출 경험 청소년을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경험 청소년에 대한 이해</li> <li>* 부모 양육태도 유형 탐색</li> <li>* 부모 스트레스 관리</li> <li>* 부모 양육효능감 증진</li> <li>* 의사소통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들의 자녀이해</li> <li>* 양육태도 유형 탐색</li> <li>* 스트레스 관리</li> <li>* 양육효능감 증진</li> </ul>
인터넷중독 청소년 개인상담 프로토콜 연구 (인터넷중독 청소년 부모상담 프로토콜)	배주미, 양재원, 조영미 외 2명 (2012)	6	인터넷 중독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형성 및 부모상담 동기화</li> <li>* 자녀특성에 대한 부모이해증진</li> <li>* 인터넷 사용 관련 부모자녀 갈등다루기</li> <li>* 훈육방법 및 양육기술 습득</li> <li>* 자녀의 약점 보완지도 방법 습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특성에 대한 부모이해 증진</li> <li>* 갈등 시, 자녀훈육 및 양육기술 습득</li> </ul>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정교영, 신희천 (2011)	8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에 대한 이해 및 변화에 대한 동기 및 희망 높이기</li> <li>* 자녀에 대한 관점 전환하기</li> <li>* 대화법 기초 배우기</li> <li>* 관계성 욕구충족의 중요성 이해</li> <li>* 양육행동 배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내면의 감정과 욕구 자각</li> <li>* 양육기술 훈련</li> </ul>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장미경 (2011)	7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발달특성 이해하기</li> <li>* 부모가 상담자로서의 기술 습득하기</li> <li>* 부모-자녀 신뢰관계 향상시키기</li> <li>*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본주의 부모교육이론을 바탕</li> <li>*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대화에 초점</li> </ul>

프로그램	개발자·연구자	회기	대상	주요 개입 방안 및 내용	핵심요인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수연, 김경민, 양대회 외 5명 (2013)	6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적, 심리적 이해</li> <li>* 초기 청소년기 자녀 부모역할 습득</li> <li>* 양육신념 점검 및 부정적 감정 해소</li> <li>* 부모자녀 의사소통능력 방법 습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li> <li>*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li> <li>*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li> </ul>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아동 상담프로그램의 효과	오익수, 김춘자, 김철 (2007)	6	초등 학생과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지속적인 관심 가지기</li> <li>* 인터넷 사용 및 일상생활에 대해 행동 목표를 자녀와 함께 정하기</li> <li>* 행동 목표의 수행여부를 자녀와 함께 평가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자녀와 협력적인 상호작용 촉진</li> </ul>
학교부적응청소년 이해증진 부모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박애린 (2005)	6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도를 통한 가족 정보 수집</li> <li>* 가족체계이해, 순환적 질문을 통한 가족관계 이해</li> <li>* 가족목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wen가족치료이론의 치료기법과 절차를 집단상담에 적용</li> </ul>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정현주, 이호준, 김하나 (2012)	6	학교 폭력 가/피해자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이해 및 양육기술 학습을 통한 조력자 역할 습득</li> <li>* 학교폭력법 및 처리절차 습득</li> <li>* 합리적 의사결정 원칙 습득</li> <li>* 부모의 어려움 나누기 및 성공 경험 나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이해 및 양육기술 학습 통한 조력자 역할 습득</li> <li>* 자녀의 권익 옹호자역할(피해자)</li> <li>* 합리적 문제해결 촉진자(가해자)</li> <li>* 부모의 어려움 나누기 및 성공경험 나누기</li> </ul>

한편, 부모상담은 특정이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를 가진 어떤 내담자에게 언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담방법의 가치와 효과가 평가될 것이다(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1999). 많은 연구자들은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상담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김환과 이장호(2006)는 경청, 반영, 요약, 직면, 해석, 질문하기 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권해수, 이지연, 지승희(2009)는 이외에도 관심기울이기, 재진술(restatement), 자기개방(self-disclosure), 정보 및 조언 제공 등의 기술을 제시하였다. Flasher와 Fogle(2004)은 관심과 경청(attending and listening), 목소리 톤 조절(tone of voice), 공감(empathy), 상대에 대한 관심표현(respect for the person), 치료적 의사소통(therapeutic communication), 의사소통유지하기(consistency of communication),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하지 않기(nonblaming language), 명확하게 진술하기(making clear statements), 협상하기

(negotiating), 결론 맺기(concluding comments) 등의 여러 기술을 제시하였다. 이윤경, 배소영, 권유진, 김민정, 박혜진, 서경희, 윤효진, 이옥분, 이은주, 정경희(2010)은 ‘적극적 경청’, ‘언어적으로 반응하기’, ‘신체적으로 반영하기’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심영숙, 2012 재인용).

첫째, ‘적극적 경청’이란 무엇보다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내담자가 하는 말을 귀로 듣는 것은 물론 그들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수단으로 전달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얼굴 표정이나 몸짓, 자세, 목소리 등으로 전달하는 내용까지 모두 포함된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경청은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내담자로 하여금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며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탐색하게 하며, 상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담자는 경청을 위해 내담자가 말하는 내용을 열심히 듣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대상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내담자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파악하여 말에 포함된 함축적인 내용이나 숨은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 ‘언어적으로 반응하기’는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질문이나 상대방의 발화에 대답 또는 반응해 주기, 요약 정리하기 등과 같이 많은 언어적 절차를 활용하게 되는데 상담 중에 명심해야 할 언어적 기술은 질문하기, 대답하기 또는 반응하기, 내용 다시 말해 주기, 요약하기, 정리 및 기록하기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신체적으로 반응하기’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선을 통한 접촉, 상담자의 자세, 상담자의 몸짓, 상담자의 언어적 행동의 네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 3. 위기청소년상담에서의 부모상담

#### 1) 청소년상담에서의 부모상담의 특징

상담이라는 과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과 성장을 돕고자 할 때 상담자는 보통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를 만나게 된다. 청소년의 부모는 청소년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청소년에게 당면 문제의 해결과 발달을 돕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 사회적 환경, 특히 부모에게 동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들의 영향력을 청소년상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은 청소년상담자의 핵심적인 활동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재인용).

청소년의 문제 인식과 변화 동기는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Shirk, Saiz, & Sarlin, 1992), 지속적인 상담참여와 상담성가에 영향을 준다(Adelman, 1984). 하지만 청소년이 자발적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상담동기가 부족하고 선생님이나 부모에 의해 상담을 받는 경향이 있다(Armbruster, & Kazdin, 1994). 청소년내담자는 비자발적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자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상담이 중요한데, 청소년상담은 부모가 상담 과정에 참여하고 부모상담은 부모 개인 및 청소년 내담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상담자와 부모와의 작업동맹은 청소년 상담의 참여와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병채, 2010; Kristin, 2002). 한편, 부모의 정신 병리는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Boyle, & Pickles, 1997),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지지, 유대감이 낮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주선영과 김광웅(2005)은 청소년상담과정에서 부모가 청소년과 함께 상담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부모-상담자가 편안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상담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정희정(2003)의 연구에서 부모 관련 변인 중 상담자와의 작업동맹이 상담종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Weisz, Amanda와 Kristin(2005)은 상담에 대한 성과와 관련하여 청소년-상담자 작업동맹과 부모-상담자 작업동맹을 살폈는데 부모와 상담자 사이의 작업동맹은 가족이 상담에 더 자주 참여하고, 상담에서의 일련의 결정사항(취소, 불참감소, 상담종결)에 동의를 잘하는 것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상담자와 청소년 부모와의 작업동맹이 상담 참여 및 상담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반면 청소년-상담자 작업동맹은 증상 개선에 대한 청소년의 보고와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와의 작업동맹이 강력할수록 치료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반면 청소년과의 작업동맹은 치료 성과에 더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내담자와 부모 모두와 작업 동맹을 잘 맺어야 한다(Hawley, & Weisz, 2005). 한편, 상담자, 청소년 내담자, 부모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청소년 내담자가 드러내는 문제에 대해 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부모와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상담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Yeh와 Weisz(2001)는 청소년 또는 부모간의 상담장면에서 부모와 청소년은 청소년의 당면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문제제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주변 환경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 더 자주 보고한 반면 부모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더 많이 언급했다. 즉, 청소년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원인을 두고, 부모는 자녀의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고 여길 수 있다.

부모상담은 내담자의 요청과 상담자의 판단에 따라 상호합의 하에 목표를 정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자녀 발달과제 성취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상담을 하게 된다(금명자, 송미경, 이호준, 이지은, 2005). 즉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로서의 양육과제를 성취해야 하나 이에 대한 미성취의 사유로 부모상담을 요청하게 된다. Galinsky(1987)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제시하였는데, 부모는 영아기에 양육자, 신뢰감 형성 및 자율성발달의 조력자, 자극 및 학습경험 제공자, 상호작용 대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유아기에는 적절한 지식을 가진 양육 및 훈육자, 자아개념 발생 촉진자, 학습경험 제공자, 주도성발달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녀의 학령기에는 학습 및 생활태도 관련 지식을 가진 훈육 및 격려자,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의 조력자, 근면성 발달의 조력자, 학습경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긍정적 상호소통을 유도하고 정체감 발달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청소년기는 새로운 자아정체감 형성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성장, 생리적 변화, 다른 사람의 평가나 기대에 대한 민감성 등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기도 하는데, 청소년기를 거치며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때 가족구성원, 특히 부모와 갈등과 격돌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이 시기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부모 역시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부모상담과정에서 부모에게 위로와 공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또한 이 시기 부모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

요약하면, 일반 성인상담에서는 내담자 개인 문제에 집중하지만, 청소년 상담에서의 부모상담의 경우, 주내담자는 청소년이나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돌봄기술, 대화기술, 자녀문제 직면하기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개입을 할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문제 해결에 목표가 있지만, 청소년 문제 개입을 위하여 부모로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부모의 문제해결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 2) 위기청소년 부모상담

청소년들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또래갈등, 가족갈등, 학업적·사회적 압력 등을 포함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들을 흔히 '위기청소년'이라 한다(구본용 외, 2005). 위기청소년이란 용어는 가출 등 위기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위기문제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뿐만 아니라 또래요인, 자녀에 대한 낮은 관여, 만성적인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등의 가족요인, 물리적으로

낙후된 환경, 낮은 사회적 유대감, 범죄관련 환경 등의 지역사회요인이 관여되며, 청소년 개인의 낮은 자존감 및 정신건강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백외조, 이종만, 2011; 유성경, 2000). 이러한 위기청소년들의 문제들은 다양한 사회적·인지적·정서적 어려움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김동일, 최수미, 2009).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위기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이에 기초하여 세부적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 빈곤계층 가정의 청소년, 가출청소년, 요보호 청소년들이 포함된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이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포함한다. 셋째,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으로 비행청소년, 우울 및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 및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청소년, 범죄가해 및 피해 청소년을 포함한다(김형수, 최하나, 2009).

Wilinson(1974)은 해체가정 및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문제행동은 가족 결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구조적인 측면과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거리, 양육태도 등 기능적 측면의 가정환경적 변인에 밀접히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감독의 부재, 부모의 거부, 부모-자녀간의 관계도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Loeber, & Loeber, 1986). 한편 김명자(2002)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간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차단되어 문제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동일, 최수미, 2009).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위기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심리, 사회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부적응 또는 문제행동이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부모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백외조와 이종만(2011)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문제를 가족에 초점을 맞춰 가족 간의 응집력을 기능적으로 발휘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부모와의 심리갈등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해 개인상담과 부모상담을 병행한 결과, 청소년의 등교거부, 인터넷과다사용, 일탈행동이 크게 개선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부모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의 필요성과 부모훈련 프로그램,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부모 참여 기회의 마련이 필요하며, 위기청소년의 개선을 위해 가족, 학교,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동반자들의 부모상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통해 상담자 역량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위기청소년은 개인 및 환경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단편적 심리치료적 접근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다(Kazdin, 1997). Lipsey와 Wilson(1998)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있어 부모의 돌봄 기술 증진과 부모 문제상담 및 내담자의 환경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위기청소년의 행동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이 필요한 것은 가족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를 잘 다루면 행동상의 문제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Sells, 1998). 상담자가 부모에 대한 개입전략을 세울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권위가 있는 위치로 복귀함으로써 부모의 힘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유지시키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청소년에게 정확한 지침을 내리고 잘못될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기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들을 지지해 줄 부모나 가정체계 자체가 빈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부모를 대신 할 수 있는 주 양육자와 주변 자원들을 상담하는 것 역시 부모상담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이에, 위기청소년들의 유형에 따른 부모상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출청소년

청소년 가출 행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자기정체감을 탐색하는 과정으로서의 가출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 가정적, 환경적 문제로서의 가출이다. 청소년기에는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면서도, 가정·사회에 소속되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욕구불만이 커진다. 이러한 상충되는 욕구들이 억압되었다가 비정상적으로 처리되는 한 형태로서 가출이 시도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정체감을 찾아가는 발달과정의 일부로서의 가출은 스스로 자기정체감을 형성해가면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지만 문제로서의 가출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가족의 불안정성, 열악한 생계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심한 지도·지원과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부모와의 대화부족(한상철, 2008; Adams, Gullotta, & Clancy, 1985), 부모와의 대화가 잘 안통해서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주동범, 임성택, 2009; Rohr, 1997; Slesnick, 2004).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들이 겪는 가족의 구조적 결함과 가족의 기능적 결함에서 발생하고 있다. Sunseri(2003)은 가출 청소년의 경우 낮은 수준의 가족기능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고, 특히 부부, 형제, 부모자식간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 가족기능에 기초한 가출 청소년 부모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부

모들의 부부관계는 겉으로 표면화된 갈등 관계로서 자녀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자녀들은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가출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자녀의 지능 및 소질, 성, 외모 등에 대한 부모의 비교나 차별적인 태도 역시 가출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자녀의 능력이나 소질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대는 자녀에게 무거운 부담감으로 작용하며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불간섭은 부모 자식 간의 애정결핍을 매개로 하여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킨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권위주의적 태도는 자녀들의 불안정한 정서와 소극적이며 산만한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어 왜곡된 시야를 가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듯 가족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할 때 청소년의 가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2) 비행청소년

인간은 학습에 있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는다. 즉 나쁜 행동까지도 학습하게 됨에 따라 부모와의 잘못된 상호작용이 비행을 포함한 부적응적인 행동의 학습 및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주된 요인으로 부모의 구타, 편애, 과도한 간섭과 완고함, 무관심, 방임적 태도, 재혼, 음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혹은 과도한 용돈, 부의 낮은 직업지위와 교육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 가정환경이 비행청소년을 만들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비행이 가정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녀의 일탈로 인해 부모의 신체·심리가 피폐해지고 가족 내의 위계가 전도되면, 부모보다 비행청소년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하고 부모의 권위는 실추된다. 이렇듯 부모가 통제능력을 상실하고 자녀에게 부적절하게 대처하여 청소년의 비행화를 유지 및 재촉하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 내의 위계가 바로 서고 부모의 권위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 청소년의 비행을 교정하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모에게 청소년 비행의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를 조정해 가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장대운, 남상인, 오익수, 김혜숙, 금명자, 김진희, 1999).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청소년만의 개인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부모가 책임이 있고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과 자책감으로 상담을 꺼린다. 그렇지만 부모는 법적,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보호자이며 문제행동은 청소년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금명자, 권혜수, 이희우, 2004).

비행청소년 부모상담의 목적은 부모 자신의 성숙과 자녀관계의 향상 그리고 자녀지도를 위

한 자질과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자녀의 문제행동이 경미할 경우에는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갈등을 생산적 해결을 촉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촉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탐색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자녀의 문제행동이 심할 경우에는 부모와의 마찰이 잦고 부모의 일방적 통제가 가해지므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가족 내에서 일관성 있는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금명자, 유정이, 이호준, 이지은, 김수리, 2004).

상담자는 부모를 청소년 상담의 우호적인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 스스로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상담에 대한 부모의 동기를 높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 및 가족의 것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3) 이혼가족 청소년

이혼이란 결혼에 의한 부부관계가 협의나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종결됨으로써 두 사람이 각자 독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회원국에서 9위로 나타났으며, 2003년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이혼율을 유지하고 있다(아주경제, 2015).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이혼에 의해 부부관계는 해소되지만 부모-자녀관계는 그대로 지속된다는 점이다. 부모가 이혼함에 따라 자녀들이 받는 충격은 일반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되어 오랫동안 지속된다. 1971년부터 10년간 131명의 이혼자녀(2.5~18세)를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해 온 미국 캘리포니아 이혼자녀문제연구소의 Wallerstein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의 이혼충격 메커니즘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 이후 자녀들은 불안 및 우울증→자포자기→과괴적 행동→좌절과 상실감→기억소실→안정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자녀들이 스스로 좌절을 극복하리라는 소극적 기대보다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재인용).

상담자는 이혼가족의 특성, 이혼 자녀 및 부모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혼가족의 자녀는 상담자를 부모의 동맹자로 여겨 저항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상담자는 청소년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와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자녀가 부모와 만났을 때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상담자는 부모가 아닌 상담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상담 시에는 부모이혼에 대한 자녀의 반응, 이혼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와 염려되는 부분 등 자녀에게 이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하여야 하며, 자녀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2010).

#### (4) 재혼가족 청소년

재혼은 이혼이나 사별로 혼인관계가 해체된 후 새로운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아직 까지 우리 사회는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혼가족은 초혼가족보다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재혼가족의 자녀가 두 가족의 구성원에 속하며,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유대가 부부간의 유대보다 훨씬 먼저 형성됨에 따라 발달적 불일치를 초래하여 초혼가족에 비해 응집력이 약하고 사회적·법적으로 상당한 차별을 받는 경향이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한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은 심리적 불안과 갈등, 혼란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 자녀들은 우울증이나 수동적 공격성과 같이 부적응 행동을 내재화하거나 반항,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외현화하기도 한다. 자녀들이 재혼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가족에 적응하려면 무엇보다도 같이 살고 있는 친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변함없는 애정과 개방적인 대화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부모역할을 할 때, 자녀도 친부모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재혼가족에 수월하게 적응을 하게 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각 재혼가족마다 계부모와 계자녀가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독특하다. 이에 모든 재혼가족에 적용 가능한 모범적인 계부모 역할상을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부모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자녀의 친부모인 배우자와의 사전 협의, 지지와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계부모는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합의된 역할을 수행하고, 친부모는 배우자에게 확고한 지지와 협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변의 친지나 상황이 유사한 계부모, 전문가들로부터 새부모 역할 수행에 유용한 정보와 지지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재혼가족과의 상담의 시작은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때 상담자의 과제는 재혼가족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가족의 복합성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 융통성 있는 가족경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 가족 간에 대화의 창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 있다. 재혼가족이 통합하여 새로운 가족구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최소한 2-3년이 걸리며, 그제서야 가족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보인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 (5) 다문화가족 청소년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내에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8.7%며, 남자 청소년(9.9%)들이 여자청소년(7.6%)보다 피해율이 높았으며 외국에서 성장한 자녀(10.4%)는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8.5%)보다 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11)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37%에 달했다. 발음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41.9%)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는(21%)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인 문제는 부모-자녀간의 긴장한 관계형성을 저해하고, 자녀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정서장애, 학교중퇴, 자살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는 먼저 가정에서 기인하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이는 외국인 부모로 인한 부실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내 이중문화로 인한 갈등과 이로 인한 고통과 긴장,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 또 언어소통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다문화 가정에서는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 변화를 다 표현할 수 없어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자기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자녀교육 문제가 있는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풍습으로부터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동을 겪을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자 할 때, 상담자는 우선 자신이 이들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6) 폭력가족 청소년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정서적, 성적 학대를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비적절한 자기통제, 가학성, 정신병적 인성유형과 미분화된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다른 사람의 공격적 행동을 관찰 모방하거나 보상이나 처벌 기제를 통해 폭력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 이외에도 경제적 여건, 스트레스 상황, 가족관계 등 가정 및 사회 환경요인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결과로도 가정폭력이 발생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체계론자들은 가정폭력이 역기능적 가족체계에서 비롯되고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폭력가족의 의사소통 양식을 살펴보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주로 가해자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주도하고 지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역기능적 가족체계에 장기간 노출된 피해자는 배우자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로 인해 자신의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에 위협을 받아 불안해하는 함입불안을 경험하거나 사회불안과 같은 불안상황에 처하게 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한편,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은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직접 피해자가 되는 자녀의 피해는 더욱 치명적으로 골절, 화상, 피부손상 등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으며 식습관 및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취학 전 아동은 언어지체나 퇴행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어른의 행동을 모방하기도 한다. 학령기 자녀는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가정에서는 부모역할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심리정서적으로는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낮고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고 공격적이며(신혜영, 최해림, 2003; 장희숙, 2003; 황은수, 성영혜, 2006),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품행장애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최지현, 2005). 특히 일반적으로 남아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울 등의 내재화된 증상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미숙, 2004).

폭력가족을 대할 때, 상담자는 가족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사전면접시 폭력 가해자의 알코올 복용정도나 정신질환 여부, 폭력 행동 정도와 위험성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가족 상담 초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개별 상담을 받도록 하여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가해자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동의받고 명시하여 가족들의 불안을 경감시키도록 한다. 상담을 위해서는 폭력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계획으로 가족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한편, 폭력을 행하는 청소년이 면담에 참여할 경우 가족상담 접근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이러한 청소년은 면담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면담을 실시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

## (7) 약물남용 청소년

약물남용이란 담배,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 알코올, 수면제, 본드, 대마초 등의 마약류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서 금단현상과 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경우 담배나 알코올 등에 노출되기 쉬운데,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 다각적 측면에서 발달에 지장을 가져오며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약물 사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도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나 동기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매우 다양하다. 호기심,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사회적 동기 또는 범죄 행위시 대범해지기 위해 약물에 접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쾌락적 동기, 관심을 끌기 위해, 성인 권위에 대한 저항과 반발심의 표시, 괴로움을 잊기 위함과 같이 다양한 이유가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한편, 청소년의 약물사용이 성인과 다른 점은, 또래간 결속력이 높고 비행집단내 약물사용에 노출되어 있다면 보다 쉽게 접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성인에 비해 중독되는 속도도 빠를 것으로 예측되나 약물 사용에 대한 증후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약물 사용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보다 어렵다(한희정, 2010).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과정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중요한 배경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 약물 사용 청소년들은 비사용청소년에 비해 가족 내에서 대화가 부족하고 신뢰받지 못하며 부모에 대해 처벌적이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신윤정, 2004). 한편 약물사용 청소년 부모는 자유방임형, 성적 혹은 신체적 학대자, 부모 자신의 알코올 문제 등의 특성이 있다고 밝혀져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약물남용 청소년의 부는 잦은 직업 변경, 일정하지 않은 직업 또는 직업에만 몰두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이경래, 김경빈, 1994). 한편, 모의 경우 일반 청소년의 모에 비해 집안일에 소홀하고 몸이 아프거나 신경질만 내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적 생활에도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이렇듯 약물남용 청소년의 가족은 다른 청소년 가족보다 혼란스럽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김진숙, 1997).

물질사용 장애에 미치는 가족력의 영향에 대한 증거가 점차 밝혀짐에 따라 가족접근방식은 중요시되고 있다(Erk, 2008). Muck, Zempolich, Titus(2001)는 가족적 접근을 주목하였는데,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가족의 의사소통, 가족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그들의 연구결과, 가족적 접근이 청소년의 물질사용 수준 감소와 가족간의 의사소통 만족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물남용 청소년 상담 시, 가족상담, 부부상담, 가족교육 프로그램, 부모집단 모임 등 가족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유용하다.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은 가족 내 역기능을 상담함으로써 가족의 통합성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며, 부모 대상의 부모집단 모임은 건강한 부모역할을 고양시키고자 실시한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8) 장애청소년

장애청소년의 심리적인 특성은 장애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장애마다 공통점은 자녀의 장애가 가정환경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령 장애가 있는 자녀의 가정 내에는 부정적 정서적 반응, 낙심, 해체 등 가족구조 재구성, 가족 갈등 등이 있다고 보고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은 개인의 성격, 결혼생활,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죄의식, 부모의 절망, 수치심, 낮은 자기존중감, 우울, 자기희생, 방어적인 심리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한우, 강위영, 이상복, 1999; 이규리, 2004).

장애청소년의 부모상담은 비장애청소년의 부모상담보다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김현주(2014)에 의하면, 장애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는 비장애청소년 부모보다 많은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Seligman(1985)은 부모들이 겪게 될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김영숙, 윤여홍, 2001).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 장애를 발견한 이후 초기 2년간 부모는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이 표출되고 이러한 감정은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Burden, 1991). 초기 과정을 넘어 장애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과 가족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자로서의 무능함과 무기력감, 육체적 피로 또는 신경성 신체질환, 불안정한 양육, 부부관계에서의 긴장과 역할분담의 어려움,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사회적 접촉회피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곽복선, 2015).

장애청소년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상담자는 이러한 부모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장애청소년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장애청소년을 둔 부모는 첫째, 도구적 역할로 자녀의 재활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서적인 역할로 죄의식 또는 수치심과 슬픔 등을 극복해야 한다. 이 때 상담자는 부모가 심리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한국장애청소년상담원, 2005).



## 4. 청소년동반자 상담

### 1)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의미

여성가족부(2015)에서는 청소년동반자를 ‘청소년상담 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자원을 발굴·연계하며,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찾아가는 상담 전문가’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는 정서적 후원자의 역할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연계하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제가 되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개입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이러한 역할을 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해 가정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좋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이탈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전체 위기수준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내적인 위기수준과 환경적인 위기수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이 하위 위험요인들 중 심리내적인 위기 영역 내 우울, 불안, 충동공격성 수준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실시 후 각 요인별 위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아짐을 알 수 있었다(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 특히, 심리내적 위기수준들 중에서도 충동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심리문제보다 우울, 불안과 같은 내현화 심리문제에 더 효과적이었는데, 이는 CYS-Net 상담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김동일, 최수미,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동반자가 부모를 대신해 위기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자원들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의 적극적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망 활용,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여 위기가능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홍나미, 2012).

### 2)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의 현실

청소년동반자 상담 현황을 보면 위기에 해당하는 문제유형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이 1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폭력-피해가 10.7%, 학업중단이 10.4%, 보호관찰과 학교폭력-피해가 8.9%, 학교폭력-가해 및 학교폭력-기타가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3. 대상청소년 문제 상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가출	578	5.9	441	5.0%	371	4.7
가정폭력-피해	1,001	10.2	892	10.1%	853	10.7
가정폭력-가해	256	2.6	207	2.4%	188	2.4
학업중단	1,125	11.4	970	11.0%	830	10.4
학교폭력-피해	1,019	10.3	846	9.6%	709	8.9
학교폭력-가해	1,222	12.4	810	9.2%	603	7.6
성매매	28	0.3	27	0.3%	31	0.4
임신/낙태	25	0.3	46	0.5%	34	0.4
성폭력-피해	182	1.8	162	1.8%	161	2.0
성폭력-가해	92	0.9	95	1.1%	112	1.4
약물과다-음주	144	1.5	142	1.6%	109	1.4
약물과다-흡연	295	3.0	301	3.4%	249	3.1
자살 준비 및 시도	324	3.3	304	3.5%	237	3.0
인터넷 중독	1,065	10.8	1,059	12.0%	1,293	16.3
은둔형 부적응	396	4.0	338	3.8%	304	3.8
보호관찰	770	7.8	845	9.6%	704	8.9
범죄	379	3.8	496	5.6%	342	4.3
학교폭력-기타	948	9.6	810	9.2%	584	7.3
학업중단숙려제대상(자퇴 전)	-	-	-	-	238	3.0
계	9,849	100.0	8,791	100.0%	7,952	100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CYS-Net 종합정보망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위와같은 위기 문제를 다룰수록 부모 개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은이, 2014 ; 오경자 등, 2005 ; 이상균, 2009 ; Erk, 2008 ; Lipsey et al, 1998 ; Nicoll, 1999) 그러나 부모의 개입이 중요한 위기청소년을 다루는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그다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14년 청소년동반자 대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보통이다’가 무려 27.3%였으며, 심지어 ‘관심없다’가 11%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나고 있어 위기청소년일수록 오히려 부모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황순길 외 2014).

표 II-4. 대상청소년에 대한 부모관심의 정도

관심 정도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없다	보통이다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계
명 (%)	24 (6.8)	39 (11.0)	97 (27.3)	140 (39.4)	55 (15.5)	355 (100.0)

이처럼 자녀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상담에 협조적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청소년 동반자들의 경우 부모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협조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황순길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협조적이지만 시간내기가 힘들다’라는 반응이 48.1%로 나타났고, ‘협조적이지 않다’가 15.3%로 나타났다.

표 II-5. 대상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협조 정도

협조정도	협조적이지 않다	협조적이다	협조적이지만 시간내기가 힘들다	계
명 (%)	54 (15.3)	129 (36.6)	169 (48.1)	352 (100.0)

결국 청소년동반자가 상담해야 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관심이 없거나(17.8%), 비록 관심이 있으나 시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48.1%) 청소년동반자의 개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청소년동반자의 부모상담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 3) 청소년동반자 개입의 특징

청소년동반자 개입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개인 중심이 아닌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다중체계적 관점을 취한다. 둘째,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동기가 낮아서 상담 받는 것을 꺼리거나 혹은 지리적 여건 또는 환경적 상황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위기청소년을 위해 전문가가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넷째, 개인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도록 종용하면서도 동시에 청소년의 생활환경에서의 문제점을 직접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적 접근을 취하는 현장중심의 직접적 개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개입 효과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개입 전략의 정교화로 각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입전략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개입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개입전략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개입전략의 정교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오경자, 이기학, 배주미, 200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기존의 상담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상담자가 청소년 내담자의 현장(가정, 학교, 시설 등)으로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상담이 이루어지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이는 상담실 셋팅에서 내담자를 관찰할 수 있는 내방상담과는 달리

상담자가 청소년 내담자의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청소년동반자가 관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즉 청소년 내담자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보다 내담자의 정서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두 번째 차이점은 기존상담이 청소년 개인의 심리내적 문제와 행동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이와 더불어 청소년 개인에게 주된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투입하여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동반자가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그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의료, 경제, 자립, 학업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는 개별적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다. 청소년동반자는 정서적 지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복지적인 서비스도 병행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즉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관계에서 사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상담과 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박한샘, 고은영, 2009 재인용)

한편, 이러한 청소년동반자의 특수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동반자 활동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 박한샘과 고은영(2009)은 청소년동반자 활동 경험을 분석하고 청소년동반자가 겪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동반자사업의 출현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1년 단위 계약직 형태로 운영되어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그들의 입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청소년동반자들은 매년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동반자들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위태로움은 업무에 대한 몰두와 자부심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동반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동반자가 ‘찾아가는 전문상담가’라고는 홍보하지만 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와 구분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청소년동반자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청소년동반자가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기 위하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때 청소년동반자들의 신분을 밝혀도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하여 활동하는데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취약계층 중에서 지적장애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선급의 청소년들이 많이 의뢰되는 것도 청소년동반자에게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 일반적인 상담 접근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인 사회적 훈련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특별히 지역사회에서 연계할 기관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소년동반자들이 만나는 위기사례 중 청소년학대, 가족 내 폭력, 부모의 알코올리즘 등과 같은 사례를 맡아 가정방문 할 경우 청소년동반자 신변에 위험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를 대비하여 다른 타인의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청소년동반자는 돌발상황에 대하여 긴급 대

비를 해야 하는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청소년동반자 역할과 관련된 어려움을 살펴보면,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정서·심리적 지지와 행동변화에 초점을 두는 상담자의 역할과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주는 사회복지적인 역할을 동시에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모두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해나가면서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혼란과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특히 상담전공자는 심리상담 쪽에 치중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과 연계부분에 취약한 반면 사회복지사는 대상자들에게 복지적인 서비스 제공을 수월하게 느끼지만 개개인 한명 한명에게 깊이 있게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관계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윤리적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있었는데, 박한샘과 공윤정(2011)에 의하면 가장 흔한 어려움은 다중관계로 내담자의 부모가 상담의 보답으로 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내담자가 청소년동반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상담 종결 후에도 사적인 만남을 원하거나 내담자의 부모가 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등이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동반자들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과 한계점에 대해 구조화하고 사적인 요구나 만남에 대해 거절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여 바람직한 방식으로 대처하였으나 내담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연구들로 보아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동반자들이 경험하는 부모상담의 어려움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들을 위한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Ⅲ. 연구1.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부모상담의 어려움에 관한 조사연구

#### 1.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재직 중인 청소년동반자 3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5년 청소년동반자는 총 1,044명이다(여성가족부,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설문에 응답한 36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328명(89.6%), 남성이 38명(10.4%)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33명(9%), 30대가 96명(26.2%), 40대가 159명(43.4%), 50대 이상이 78명(21.3%)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이 4명(1.1%), 대학교 졸업이 74명(20.2%), 석사재학 및 수료 99명(27%), 석사가 163명(44.4%), 박사재학 및 수료가 25명(6.8%)이었다. 상담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55명(15%), 1년 이상 2년 미만이 51명(13.9%), 2년 이상이 260명(70.8%)이었다.

표 Ⅲ-1. 청소년동반자 일반적 특성

N=366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38	10.4
	여	328	89.6
연령	20대	33	9.0
	30대	96	26.2
	40대	159	43.4
	50대 이상	78	21.3
최종학력사항	대학교 재학	4	1.1
	대졸	74	20.3
	석사 재학 및 수료	99	27.1
	석사	163	44.7
	박사 재학 및 수료	25	6.8
	결측치	1	0.3
총 상담경력	1년미만	55	15.0
	1년이상 2년미만	51	13.9
	2년이상	260	71

## 2) 연구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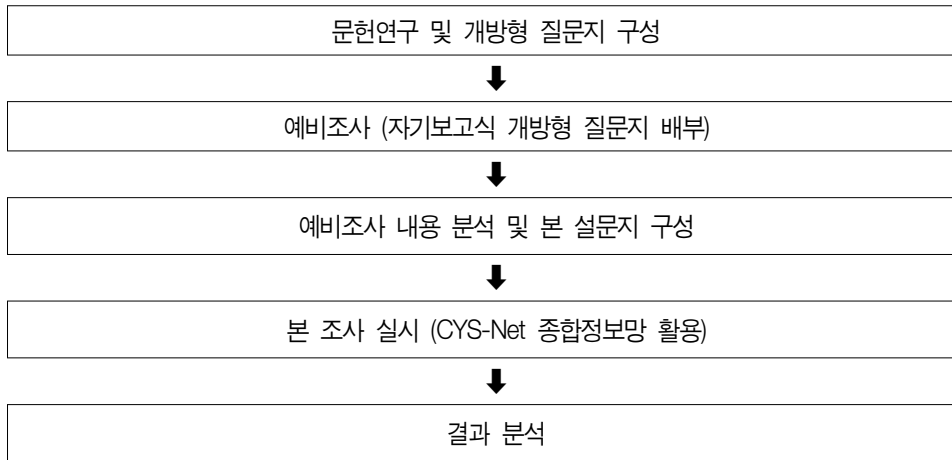
### (1)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관련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동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상담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지는 성별, 활동경력, 연령을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과 사례당 부모상담 평균 회기, 부모상담 어려움, 효과적인 부모상담 진행을 위한 방안 등 6가지 질문에 대해 자유기술 하도록 하였다.

### (2) 본조사

설문지는 예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부모상담의 어려움 및 개입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총 10문항으로 청소년동반자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나이, 학력, 전공, 상담경력(총상담경력, 전일제청소년동반자경력, 시간제청소년동반자경력), 자격증, 활동지역 및 활동센터로 구성하였다. 부모상담의 어려움 및 개입방법은 예비조사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정지영(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상담 요구도 조사' 설문지를 기초로 본 연구진이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정보 총 10문항, 부모상담의 중요성, 진행방식을 묻는 2문항과 부모상담의 어려움 및 개입방법을 묻는 54문항을 포함하여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상담의 어려움 및 개입방법은 크게 3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소년동반자 변인 13문항, 부모 변인 40문항, 환경 변인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45문항은 어려움 경험 유무를 확인하는 문항과 어려움을 측정하는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9문항은 어려움을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분석 결과는 Cronbach  $\alpha$  =.96이었다.

## 2. 연구절차



### 1) 문헌연구 및 개방형 질문지 구성

본 조사에 앞서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관련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3월 19일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동반자 117명 대상으로 6문항으로 구성된 개방형 질문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설문지 제작 및 협조공문 발송

예비조사에서 나온 내용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교수 1인, 교육학 박사 4인이 참여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 제작 후 청소년동반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국 20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설문조사 일정을 공지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용 정보망을 통한 조사 실시

청소년동반자들이 원활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전산화하여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보망(CYS-Net 종합정보망)에 탑재하여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정보망으로 확인하고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정보망 활용이 어려운 일부 대상자들은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조사결과 코딩 및 분석

CYS-Net 정보망을 통해 취합된 설문조사, 전자우편 및 팩스 수신을 포함하여 회수된 질문지 총 366부가 본 조사를 위한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취합된 결과를 코딩하고 SPSS로 통계분석한 후 결과를 정리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자유반응의 경우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문항들을 공통범주들로 유목화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문항들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동반자의 인구학적 통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동반자의 특성(결혼여부, 자녀유무, 연령대, 경력, 학력)에 따라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비교하기 위해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328명(89.4%), 남성이 38명(10.4%)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59명(43.3%), 30대가 96명(26.2%), 50대 이상이 78명(21.3%), 20대가 33명(9%)이었다. 학력별로는 석사가 163명(44.4%), 석사재학 및 수료 99명(27%), 대학교 졸업이 74명(20.2%), 박사재학 및 수료가 25명(6.8%), 대학교 재학이 4명(1.1%)이었고, 전공을 살펴보면, 상담전공이 195명(53.1%)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가 57명(15.5%), 교육학이 34명(9.3%), 청소년학이 29명(7.9%), 심리학이 19명(5.2%), 임상심리가 4명(1.1%), 기타 전공이 27명(7.4%)이었다. 총 상담경력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55명(15%), 1년 이상 2년 미만이 51명(13.9%), 2년 이상이 260명(70.8%)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

N=366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38	10.4
	여	328	89.6
연령	20대	33	9.0
	30대	96	26.2
	40대	159	43.4
	50대 이상	78	21.3
결혼여부	기혼	259	70.6
	미혼	104	28.3
	결측치	3	0.8
자녀 연령	학령전	41	11.2
	초등학생	30	8.2
	중학생	28	7.6
	고등학생	39	10.6
	20세이상	124	33.8
	자녀없음	99	27.0
	결측치	5	1.6
최종학력사항	대학교재학	4	1.1
	대졸	74	20.2
	석사 재학 및 수료	99	27.0
	석사	163	44.4
	박사 재학 및 수료	25	6.8
	결측치	1	0.3
최종학력 전공	상담	195	53.1
	임상심리	4	1.1
	사회복지학	57	15.5
	교육학	34	9.3
	심리학	19	5.2
	청소년학	29	7.9
	기타	27	7.4
	결측치	1	0.3
보유자격증 (중복 응답)	청소년상담사	111	18
	청소년지도사	91	14
	사회복지사	190	30
	상담심리사	40	6
	전문상담사	59	9
	임상심리사	14	2
	전문상담교사	11	2
	교사	26	4
	기타	70	11
	없음	19	3
총 상담경력	1년미만	55	15.0
	1년이상 2년미만	51	13.9
	2년이상	260	71

연구 참여자의 활동지역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29.6%, 수도권 26.9%, 강원충청권 24.4%, 전라제주권 18.9%였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경상남도가 18.4%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가 0.8%로 가장 낮았다.

표 III-3. 청소년동반자 활동지역

N=366

지역	연구참여자(명)	비율(%)
수도권	서울	39
	인천	12
	경기	47
강원 충청권	대전	32
	세종	5
	충북	10
	충남	18
전라 제주권	강원	24
	광주	31
	전북	11
	전남	21
경상권	제주	6
	부산	17
	대구	3
	울산	10
	경북	11
경남	67	
결측치	2	0.5
합계	366	100

청소년동반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센터별로는 기초시구 센터가 52.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광역시 센터로 26.7%, 기초 군센터가 11.2%, 광역도 센터가 8.4% 순이었다.

표 III-4. 청소년동반자 활동센터

N=366

지역	연구참여자(명)	비율(%)
광역시 센터	98	26.7
광역도 센터	31	8.4
기초시구 센터	194	52.9
기초군 센터	41	11.2
결측치	2	0.5
합계	366	100

## 2) 부모상담의 중요성 및 진행방식

일반적인 청소년상담과 비교하여, 청소년동반자 상담에서 부모(주양육자)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더 중요하다’(39.5%), ‘훨씬 더 중요하다’(37.9%), ‘비슷하다’(19.6%) 순으로 나타났으며, ‘훨씬 덜 중요하다’와 ‘덜 중요하다’는 각각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일반적인 청소년상담에 비해 청소년동반자 대상청소년에 대해 개입할 때 부모상담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5. 일반 청소년상담에 비해 청소년동반자 상담에서의 부모상담 중요성

N=366

지역	빈도(명)	비율(%)
훨씬 덜 중요하다	4	1.1
덜 중요하다	4	1.1
비슷하다	72	19.6
더 중요하다	145	39.5
훨씬 더 중요하다	139	37.9
결측치	2	0.5
합계	366	100.0

청소년동반자들의 부모상담 진행방식을 살펴보면, ‘청소년 상담을 몇 회기 진행한 후, 부모 상담을 따로 진행’(56.4%), ‘상담 초기와 종결 시점에만 상담’(19.1%), ‘가급적 청소년 상담 매 회기마다 부모상담 병행’(17.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상담은 거의 진행하지 않음’은 6.3%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들은 대체로 부모상담을 별도 회기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6. 부모상담 주된 진행방식

N=366

지역	빈도(명)	비율(%)
가급적 청소년 상담 매 회기마다 부모(주양육자) 상담을 병행	64	17.4
청소년 상담을 몇 회기 진행한 후, 부모(주양육자) 상담을 따로 진행	207	56.4
상담 초기와 종결 시점에만 부모(주양육자) 상담을 진행	70	19.1
부모(주양육자) 상담은 거의 진행하지 않음	23	6.3
결측치	2	0.5
합계	366	100.0

### 3)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청소년동반자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54문항으로 크게 청소년동반자변인, 부모변인, 환경변인 3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각 문항들은 표 III-7과 같다.

표 III-7. 부모(주양육자)상담의 어려움

구분		문항 (문항번호)
청소년 동반자 변인	개입기술 (5문항)	동반자가(본인이) 부모상담장면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15)
		부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19)
		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에게 역전이가 일어난다.(22)
		다문화 가정 부모와 상담한다.(44)
	개입유능감 (5문항)	동반자가 부모 앞에서 상담자로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16)
		상담자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17)
		동반자로서 상담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18)
		동반자와 부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20)
		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의 어려움에 압도당한다.(21)
부모 변인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 (10문항)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서 자녀의 문제보다 생계를 우선으로 생각한다.(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서 매우 권위적이다.(3)
		부모가 상담시간을 자주 변경한다.(4)
		부모가 센터에만 알리고 상담을 종결한다.(6)
		부모가 자녀 혹은 동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 상담의 종결을 요구한다.(7)
		부모가 상담시간을 미루는 등 상담에 불성실하게 임한다.(8)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권유해도 받지 않는다.(35)
		부모가 동반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본다.(41)
		부모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상담에 참여하여 상담동기가 낮다.(46)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47)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8문항)	부모가 상담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9)
		동반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한다.(23)
		동반자가 양육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24)
		부모가 동반자에게 반말을 한다.(37)
	부모가 동반자의 말을 무시한다.(38)	
	부모가 동반자를 무시하는 비언어적인 태도를 보인다.(39)	
	부모가 동반자에게 화를 낸다.(40)	
	상담중, 성과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호소한다.(48)	

구분	문항 (문항번호)	
청소년동반자 사업 이해부족 (2문항)	부모가 동반자를 도우미로 인식하는 등 동반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25)	
	부모가 동반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복지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한다.(45)	
통찰력 부족 (8문항)	부모가 상담의 모든 성과를 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10)	
	부모가 상담 중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동반자의 잘못으로 돌린다.(11)	
	부모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옳다고 우긴다.(27)	
	부모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한다.(28)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에 지나친 죄책감을 갖는다.(29)	
	부모가 피해의식이 높아서 동반자의 행동을 오해한다.(36)	
	부모가 동반자가 제시하는 의견(양육태도, 의사소통 방법 등)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일방적인) 양육태도를 고집한다.(51)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52)	
의존성 (2문항)	부모가 작은 일도 자주 질문하며 동반자에게 많이 의존한다.(26)	
	부모가 본인 대신 동반자에게 자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주기를 요구한다.(50)	
부모문제에 대한 개입요구 (2문항)	부모가 자녀문제보다 부모 자신의 문제를 도움 받고 싶어한다.(30)	
	부모가 알콜중독, 이혼, 부부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31)	
부모의 개인적 문제 (5문항)	부모의 생계, 직업적 사유 등으로 부모를 만나기 어렵다.(1)	
	부모가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5)	
	부모의 지적수준이 낮다고 판단된다.(32)	
	부모의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다.(33)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 (5문항)	부모가 자녀문제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12)	
	자녀와 비밀스럽게 다룬 상담내용을 부모가 듣고 싶어한다.(13)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자녀를 통제하고자 한다.(14)	
	부모가 쏟아내듯이 자기 이야기만 과도하게 한다.(말을 길게 하는 부모의 말을 끊지 못한다.(49)	
	자녀와 부모가 청소년의 문제 및 상황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한다.(53)	
청소년의 부모상담 거부 (1문항)	자녀가 부모상담을 거부한다.(42)	
환경 변인	회기의 제한 (1문항)	회기가 제한적이므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한다.(43)
	청소년동반자 안전문제(1문항)	부모를 만날 때 청소년동반자(본인)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생긴다.(54)

### (1) 청소년동반자 변인으로 인한 부모상담의 어려움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청소년동반자 개입 역량부족과 관련된 어려움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청소년동반자 개입역량부족은 청소년동반자 개입기술과 청소년동반자 개입유능감으로 구분하였는데, 각 영역별 평균을 보면 ‘청소년동반자 개입기술’에서 35.38%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청소년동반자 개입유능감’에서는 37.9%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상세한 반응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동반자 개입기술’에서 어렵다는 응답이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장면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에서 41%, ‘역전이 일어났다’에서 40.4%를 보이고 있어서 청소년동반자들에게 부모 개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동반자 개입유능감’에서 어렵다는 응답은 ‘상담경험 부족’에서 47.4%, ‘통찰력 부족’에서 39.1%, ‘부모에게 압도당한다’에서 37.9%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동반자들이 청소년상담에는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경험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들이 프로토콜을 통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Ⅲ-8. 부모상담의 주요 어려움 (청소년동반자 변인)

구분	번호	문항	어렵지 않다 (%)	보통이다 (%)	어렵다 (%)
개입 기술	15	청소년동반자가(본인이) 부모상담 장면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	27,5	31,5	41,0
	19	부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43,9	32,8	23,2
	22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에게 역전이가 일어난다.	33,7	25,8	40,4
	44	다문화 가정 부모와 상담한다.	33,3	29,7	36,9
		평균	34,60	29,95	35,38
개입 유능감	16	청소년동반자가 부모 앞에서 상담자로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29,8	31,1	39,1
	17	상담자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34,6	29,6	35,7
	18	청소년동반자로서 상담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26,6	26,0	47,4
	20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35,7	32,1	32,1
	21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의 어려움에 압도당한다.	36,1	26,0	37,9
		평균	32,56	28,96	38,44

## (2) 부모변인으로 인한 부모상담의 어려움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부모변인과 관련된 어려움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부모변인은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청소년동반자 사업 이해부족’, ‘통찰력 부족’, ‘의존성’, ‘부모문제에 대한 개입 요구’, ‘부모의 개인적 문제’,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개인적 문제’(58.56%), ‘의존성’(48.9%),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47.68%), ‘통찰력 부족’(47.24%), ‘부모 문제에 대한 개입 요구’(44.45%),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43.64%), ‘청소년동반자 사업 이해 부족’(42.5%)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청소년동반자가 비교적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영역은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35.96%), ‘청소년동반자 사업 이해부족’(32%), ‘부모 문제에 대한 개입 요구’(31.0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9. 부모상담의 주요 어려움 (부모 변인)

구분	번호	문항	어렵지 않다 (%)	보통이다 (%)	어렵다 (%)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	2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서 자녀의 문제보다 생계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12.9	22.1	65.0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서 매우 권위적이다.	31.4	34.9	33.7
	4	부모가 상담시간을 자주 변경한다.	35.1	33.7	31.2
	6	부모가 센터에만 알리고 상담을 종결한다.	45.5	26.0	28.5
	7	부모가 자녀 혹은 청소년동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 상담의 종결을 요구한다.	31.3	21.4	47.3
	8	부모가 상담시간을 미루는 등 상담에 불성실하게 임한다.	31.5	26.1	42.4
	35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권유해도 받지 않는다.	14.3	25.0	60.7
	41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본다.	47.6	33.9	18.5
	46	부모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상담에 참여하여 상담동기가 낮다.	24.4	29.9	45.8
	47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5.9	20.8	63.3
		평균	28.99	27.38	43.64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9	부모가 상담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	25.6	31.1	43.3
	23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한다.	38.1	30.0	31.9
	24	청소년동반자가 양육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45.7	28.9	25.4
	37	부모가 청소년동반자에게 반말을 한다.	46.5	30.5	23.0
	38	부모가 청소년동반자의 말을 무시한다.	44.9	27.3	27.8
	39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무시하는 비언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44.3	30.0	25.7
	40	부모가 청소년동반자에게 화를 낸다.	36.1	27.9	36.1
	48	상담중, 성과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호소한다.	25.6	34.4	39.9
		평균	38.35	30.01	31.64



구분	번호	문항	어렵지 않다 (%)	보통이다 (%)	어렵다 (%)
청소년 동반자 사업 이해부족	25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도우미로 인식하는 등 청소년동반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32.8	23.2	43.9
	45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복지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한다.	31.2	27.7	41.1
	평균		32.00	25.45	42.50
통찰력 부족	10	부모가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29.9	24.0	46.1
	11	부모가 상담 중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청소년동반자의 잘못으로 돌린다.	30.5	27.2	42.3
	27	부모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옳다고 우긴다.	30.3	24.3	45.3
	28	부모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한다.	19.7	23.1	57.1
	29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에 지나친 죄책감을 갖는다.	34.9	32.5	32.5
	36	부모가 피해의식이 높아서 청소년동반자의 행동을 오해한다.	28.3	29.2	42.5
	51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시하는 의견(양육태도, 의사 소통 방법 등)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일방적인) 양육태도를 고집한다.	15.7	24.0	60.2
	52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22.5	25.6	51.9
평균		26.48	26.24	47.24	
의존성	26	부모가 작은 일도 자주 질문하며 청소년동반자에게 많이 의존한다.	25.4	29.2	45.4
	50	부모가 본인 대신 청소년동반자에게 자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요구한다.	24.7	23.0	52.4
	평균		25.05	26.10	48.90
부모 문제에 대한 개입요구	30	부모가 자녀문제보다 부모 자신의 문제를 도움 받고 싶어한다.	35.8	24.0	40.3
	31	부모가 알콜중독, 이혼, 부부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26.3	25.1	48.6
	평균		31.05	24.55	44.45
부모의 개인적 문제	1	부모의 생계, 직업적 사유 등으로 부모를 만나기 어렵다.	16.3	25.0	58.8
	5	부모가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6.8	22.7	60.5
	32	부모의 지적수준이 낮다고 판단된다.	25.8	23.6	50.6
	33	부모의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다.	24.7	25.8	49.4
	34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12.6	13.9	73.5
	평균		19.24	22.20	58.56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	12	부모가 자녀문제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24.4	24.0	51.6
	13	자녀와 비밀스럽게 다룬 상담내용을 부모가 듣고 싶어한다.	32.9	26.1	41.0
	14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자녀를 통제하고자 한다.	23.3	21.3	55.4
	49	부모가 쏟아내듯이 자기 이야기만 과도하게 한다(말을 길게 하는 부모의 말을 끊지 못한다)	33.1	23.7	43.3
	53	자녀와 부모가 청소년의 문제 및 상황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한다.	23.8	29.1	47.1
평균		27.50	24.84	47.68	

문항별 상세한 반응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동반자들은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전체 응답자의 73.5%가 어렵다고 응답함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다루어주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안내해주거나, 적극적으로 연계해주는 역할을 부모상담 프로토콜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소년동반자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교육함으로써,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호소할 때 다루어주지 못함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감소시켜주는 것도 청소년동반자 소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서 자녀의 문제보다 생계를 우선으로 생각함’(65%),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63.3%),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권유해도 받지 않음’(60.7%), ‘부모가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60.5%)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봄’(47.6%), ‘반말을 함’(46.5%), ‘청소년동반자가 양육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45.7%), ‘부모가 센터에만 알리고 상담을 종결’(45.5%),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말을 무시’(44.9%), ‘청소년동반자를 무시하는 비언어적 태도’(44.3%)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환경변인으로 인한 부모상담의 어려움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환경변인을 살펴보면, 회기의 제한에 대한 어려움이 58.1%로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의 부모상담 거부가 41.9%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37.4%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부모상담의 주요 어려움 (환경 변인)

구분	번호	문항	어렵지 않다 (%)	보통이다 (%)	어렵다 (%)
청소년의 부모상담 거부	42	청소년이 부모상담을 거부한다.	30.6	27.5	41.9
회기의 제한	43	회기가 제한적이므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한다.	16.5	25.4	58.1
청소년동반자 안전문제	54	부모를 만날 때 청소년동반자 (본인)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생긴다.	29.9	32.7	37.4

회기가 3개월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사업 초기인 2005-2006년부터 단기상담과 문제해결중심 전략들을 청소년동반자들에게 교육하였고, 3개월로 해결되지 못

할 경우 소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협의하여 1회(3개월) 또는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소년동반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제한이 심리적 어려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개입 이외에 부모상담을 위한 회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프로토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부모상담 거부하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도 높았으나, 어렵지 않다는 응답도 30.6%에 이르기 때문에 연령이나 경력 등 다른 요인들을 반영한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요인들을 반영한 분석은 다음 절에 제시하였다. 청소년동반자 안전문제 역시 어렵다는 반응이 37.4%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역시 프로토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청소년동반자 변인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 (1) 청소년동반자의 연령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청소년동반자 연령에 따라 부모상담에서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54개 문항 중 25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20대일수록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반응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25개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움 인식점수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어려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로서의 출산과 양육경험,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대처 등의 경험 유무가 어려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동반자들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 9%, 30대 26.2%, 40대 43.4%, 50대 이상 21.3%로 4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50대 이상, 20대 순이었다. 비록 20대와 30대는 40-50대에 비해 빈도는 크게 높지는 않더라도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항목별로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방안들을 프로토콜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표 III-11. 청소년동반자의 연령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문항		20대 <sup>a</sup> (N=33)	30대 <sup>b</sup> (N=96)	40대 <sup>c</sup> (N=159)	50대이상 <sup>d</sup> (N=78)	F	사후분석 (Scheffe)
개입 기술	부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 한다.	4.04 (1.23)	3.97 (1.52)	3.47 (1.54)	3.33 (1.41)	3.177*	

문항		20대 <sup>a</sup> (N=33)	30대 <sup>b</sup> (N=96)	40대 <sup>c</sup> (N=159)	50대이상 <sup>d</sup> (N=78)	F	사후분석 (Scheffe)
개입 유능감	청소년동반자가 부모 앞에서 상담자로서 동참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4.83 (1.62)	4.46 (1.45)	3.98 (1.54)	3.62 (1.38)	6.046***	a)d
	상담자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4.90 (1.54)	4.50 (1.44)	3.69 (1.65)	3.44 (1.47)	9.740***	a,b)c,d
	청소년동반자로서 상담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4.76 (1.82)	4.76 (1.38)	4.29 (1.58)	3.74 (1.58)	5.945***	a,b)d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3.96 (1.62)	4.36 (1.52)	3.68 (1.51)	3.55 (1.50)	4.062**	b)c,d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의 어 려움에 압도당한다.	4.64 (1.42)	4.57 (1.46)	3.84 (1.56)	3.54 (1.43)	7.435***	a)d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권유해도 받지 않 는다.	5.33 (1.59)	5.13 (1.43)	4.69 (1.45)	4.44 (1.46)	3.772*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개인 사생활에 대 해 물어본다.	3.77 (1.74)	3.66 (1.48)	3.44 (1.60)	2.93 (1.15)	2.916*	
	부모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상담에 참여 하여 상담동기가 낮다.	4.73 (1.32)	4.66 (1.18)	4.09 (1.38)	4.04 (1.37)	5.843***	b)c,d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 지 않는다.	4.76 (1.20)	4.93 (1.09)	4.53 (1.29)	4.45 (1.39)	2.753*	
상담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한다.	4.50 (1.37)	4.10 (1.38)	3.75 (1.53)	3.49 (1.46)	3.773*	a)d
	청소년동반자가 양육문제에 대해 공감하 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4.92 (1.59)	4.19 (1.43)	3.31 (1.37)	2.87 (1.27)	18.333***	a,b)c,d
청소년동 반자사업 이해부족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도우미로 인식하 는 등 청소년동반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4.89 (1.66)	4.69 (1.65)	4.00 (1.58)	3.68 (1.59)	6.433***	a)d
통찰력 부족	부모가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 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4.88 (1.66)	4.60 (1.65)	4.04 (1.70)	3.70 (1.53)	4.758***	a,b)d
	부모가 상담 중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청 소년동반자의 잘못으로 돌린다.	5.08 (1.75)	4.30 (1.87)	4.14 (1.62)	3.78 (1.54)	3.523*	a)d
	부모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한다.	5.21 (1.31)	5.03 (1.44)	4.55 (1.43)	4.19 (1.40)	5.682***	a,b)d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시하는 의견 (양육태도, 의사소통 방법 등)을 거부하 고 자신의 잘못된(일방적인) 양육태도를 고집한다.	5.30 (1.18)	4.98 (1.24)	4.47 (1.33)	4.66 (1.58)	5.031**	a,b)c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비 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4.94 (1.29)	4.73 (1.10)	4.24 (1.24)	4.17 (1.40)	5.853***	a,b)c,d

문항		20대 <sup>a</sup> (N=33)	30대 <sup>b</sup> (N=96)	40대 <sup>c</sup> (N=159)	50대이상 <sup>d</sup> (N=78)	F	사후분석 (Scheffe)
의존성	부모가 작은 일도 자주 질문하며 청소년동반자에게 많이 의존한다.	5.07 (1.33)	4.75 (1.46)	4.26 (1.39)	3.53 (1.54)	11.466***	a,b,c>d
	부모가 본인 대신 청소년동반자에게 자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주기를 요구한다.	5.03 (1.42)	4.74 (1.31)	4.11 (1.37)	4.28 (1.42)	6.654***	a,b>c
개인적 문제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5.71 (1.35)	5.44 (1.36)	5.09 (1.35)	4.68 (1.50)	5.311**	a,b>d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	부모가 자녀문제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5.04 (1.50)	4.53 (1.27)	4.43 (1.45)	4.05 (1.49)	3.308*	a>d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자녀를 통제하고자 한다.	5.48 (1.35)	4.95 (1.27)	4.36 (1.57)	4.06 (1.54)	8.690***	a>c,d
	부모가 쏟아내듯이 자기 이야기만 과도하게 한다.(말을 길게 하는 부모의 말을 끊지 못한다.)	4.97 (1.35)	4.59 (1.34)	3.86 (1.37)	3.81 (1.48)	10.855***	a,b>c,d
	자녀와 부모가 문제 및 상황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한다.	4.85 (1.39)	4.66 (1.10)	4.17 (1.23)	4.08 (1.40)	6.008***	a,b>c,d

<sup>a</sup>p<.05, <sup>\*\*</sup>p<.01, <sup>\*\*\*</sup>p<.001

## (2) 청소년동반자의 경력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청소년동반자 경력에 따라 부모상담에서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54개 문항 중 16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대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1년이상에서 2년미만’의 경력자가 ‘1년미만’ 또는 ‘2년이상’의 경력자보다 더 어려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범주나 통찰력 부족 범주에서 그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청소년동반자들에 비해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청소년동반자들이 사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더 깊은 탐색과 개입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게 되면 이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어 느정도 벗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상담 프로토콜에서는 경력을 고려한 부모상담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III-12. 청소년동반자의 경력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문항		1년미만 <sup>a</sup> (N=55)	1년이상 <sup>b</sup> (N=51)	2년이상 <sup>c</sup> (N=260)	F	사후분석 (Scheffe)
개입 기술	청소년동반자가(본인이) 부모상담 장면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	4.94 (1.33)	4.48 (1.20)	4.02 (1.37)	7.952***	a)c
	부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4.09 (1.54)	4.24 (1.42)	3.44 (1.47)	6.597**	b)c
개입 유능감	부모앞에서상담자로서통찰력이부족하다고느낀다.	4.67 (1.33)	4.71 (1.42)	3.90 (1.55)	7.983***	a,b)c
	상담자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4.56 (1.43)	4.61 (1.52)	3.71 (1.63)	8.925***	a,b)c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3.56 (1.52)	4.46 (1.33)	3.78 (1.57)	4.142*	b)a,c
	청소년동반자로서 상담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5.04 (1.33)	5.11 (1.43)	4.01 (1.58)	15.522***	a,b)c
비협조적 태도	부모가 상담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본다.	3.50 (1.75)	4.00 (1.44)	3.27 (1.46)	3.453*	b)c
상담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 부족	부모가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4.33 (1.37)	4.98 (1.19)	4.09 (1.57)	5.906**	b)c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한다.	4.19 (1.47)	4.38 (1.13)	3.70 (1.53)	4.467*	b)c
	청소년동반자가 자녀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3.85 (1.77)	4.42 (1.11)	3.42 (1.51)	7.229**	b)c
통찰력 부족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4.42 (1.71)	4.92 (1.27)	4.01 (1.71)	4.842**	b)c
	부모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한다.	5.15 (1.03)	4.98 (1.42)	4.49 (1.50)	4.888**	a)c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시하는 의견(양육태도, 의사소통 방법등)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 (일방적인) 양육태도를 고집한다.	4.78 (1.37)	5.18 (1.31)	4.61 (1.38)	3.654**	b)c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4.51 (1.22)	4.82 (1.38)	4.32 (1.26)	3.377*	b)c
상담 주도경향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청소년을 통제하고자 한다.	5.03 (1.21)	5.14 (1.23)	4.36 (1.59)	6.878**	a,b)c
부모의 개인적 문제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5.69 (1.05)	5.34 (1.36)	5.00 (1.47)	4.821**	a)c

\*p<.05, \*\*p<.01, \*\*\*p<.001

### (3) 청소년동반자의 결혼여부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청소년동반자의 결혼여부에 따라 부모상담에서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54개 문항 중 21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1개 문항은 대체로 ‘개입기술’, ‘개입유능감’,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청소년동반자 사업 이해 부족’, ‘통찰력 부족’, ‘의존성’,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 등의 범주에 속해 있었는데, 21개 문항에서 모두 일관되게 미혼이 더 어려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연령이나 경력에 따른 어려움 지각의 차이와 비슷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미혼인 청소년동반자들에게 각 문항별 대처 방안이 프로토콜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III-13. 청소년동반자의 결혼여부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문항		기혼 M (SD)	미혼 M (SD)	t
개입기술	부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3.43 (1,462)	4.09 (1,500)	-3.460***
개입 유능감	청소년동반자가 부모 앞에서 상담자로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3.91 (1,450)	4.63 (1,602)	-3.719***
	상담자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3.76 (1,562)	4.50 (1,665)	-3.531***
	청소년동반자로서 상담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4.21 (1,570)	4.66 (1,630)	-2.201*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3.73 (1,516)	4.16 (1,596)	-2.096*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의 어려움에 압도당한다.	3.85 (1,554)	4.48 (1,468)	-3.079**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권유해도 받지 않는다.	4.68 (1,460)	5.07 (1,523)	-1.993*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본다.	3.27 (1,475)	3.75 (1,560)	-2.179*
	부모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상담에 참여하여 상담동기가 낮다.	4.13 (1,373)	4.66 (1,251)	-3.442***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청소년동반자가 양육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3.28 (1,391)	4.31 (1,580)	-5.282***
	상담 중, 성과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호소한다.	4.08 (1,300)	4.40 (1,333)	-2.113*

문항		기혼 M (SD)	미혼 M (SD)	t
동반자사업 이해부족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도우미로 인식하는 등 청소년동반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3.98 (1,617)	4.60 (1,673)	-2.844**
통찰력 부족	부모가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3.96 (1,675)	4.71 (1,602)	-3.339***
	부모가 상담 중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청소년동반자의 잘못으로 돌린다.	4.00 (1,643)	4.64 (1,798)	-2.705**
	부모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한다.	4.53 (1,454)	4.91 (1,428)	-2.010*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시하는 의견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고집한다.	4.62 (1,440)	4.97 (1,218)	-2.375*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4.31 (1,293)	4.64 (1,214)	-2.226*
의존성	부모가 작은 일도 자주 질문하며 청소년동반자에게 많이 의존한다.	4.07 (1,526)	4.76 (1,377)	-3.665***
	부모가 본인 대신 청소년동반자에게 자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주기를 요구한다.	4.28 (1,410)	4.66 (1,370)	-2.358*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자녀를 통제하고자 한다.	4.39 (1,556)	4.94 (1,393)	-2.883**
	부모가 쏟아내듯이 자기 이야기만 과도하게 한다.	3.96 (1,393)	4.56 (1,493)	-3.584***

\* $p < .05$ , \*\* $p < .01$ , \*\*\* $p < .001$

#### (4) 청소년동반자의 자녀유무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청소년동반자에게 자녀 유무에 따라 부모상담에서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54개 문항 중 23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3개 문항은 대체로 ‘개입기술’, ‘개입유능감’,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청소년동반자 사업 이해 부족’, ‘통찰력 부족’, ‘의존성’, ‘개인적 문제’,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 ‘회기의 제한’ 등의 범주에 속해 있었는데, 23개 문항에서 모두 일관되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 더 어려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동반자의 결혼유무와도 매우 비슷하다. 다만 결혼유무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개인적 문제’, ‘회기의 제한’ 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부모상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동반자를 선발할 때 자녀양육 유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미혼 또는 자녀가 없는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부모상담 프로토콜에는 이에 대한 대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III-14. 청소년동반자의 자녀유무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문항		자녀있음 M (SD)	자녀없음 M (SD)	t
개입 기술	청소년동반자가(본인이) 부모상담 장면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	4.08 (1.35)	4.48 (1.44)	-2.173*
	부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3.49 (1.48)	3.98 (1.53)	-2.410*
개입 유능감	부모(주양육자)앞에서 상담자로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3.95 (1.49)	4.54 (1.57)	-3.016**
	상담자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3.78 (1.59)	4.44 (1.65)	-3.119**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3.73 (1.52)	4.18 (1.58)	-2.195*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의 어려움에 압도당한다.	3.86 (1.54)	4.45 (1.52)	-2.897**
부정적 비협조적 태도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권유해도 받지 않는다.	4.68 (1.46)	5.08 (1.54)	-1.984*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본다.	3.23 (1.48)	3.81 (1.54)	-2.688**
	부모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상담에 참여하여 상담동기가 낮다.	4.12 (1.36)	4.70 (1.29)	-3.663***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청소년동반자가 양육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3.33 (1.45)	4.22 (1.53)	-4.445***
	상담 중, 성과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호소한다.	4.08 (1.30)	4.40 (1.34)	-2.060*
청소년동 반자사업 이해부족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도우미로 인식하는 등 청소년동반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3.98 (1.62)	4.60 (1.67)	-2.844**
통찰력 부족	부모가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3.99 (1.68)	4.71 (1.58)	-3.147**
	부모가 상담 중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청소년동반자의 잘못으로 돌린다.	4.00 (1.64)	4.67 (1.79)	-2.825**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시하는 의견(양육태도, 의사소통 방법 등)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일방적인) 양육태도를 고집한다.	4.59 (1.41)	5.04 (1.28)	-2.801**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4.30 (1.25)	4.66 (1.30)	-2.382*
의존성	부모가 작은 일도 자주 질문하며 청소년동반자에게 많이 의존한다.	4.12 (1.53)	4.67 (1.43)	-2.865**
	부모가 본인 대신 청소년동반자에게 자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주기를 요구한다.	4.27 (1.35)	4.67 (1.51)	-2.407*
개인적 문제	부모의 생계, 직업적, 심리적 사유 등으로 부모를 만나기 어렵다.	4.63 (1.36)	5.03 (1.39)	-2.364**

문항		자녀있음 M (SD)	자녀없음 M (SD)	t
상담을 주도하려 는경향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자녀를 통제하고자 한다.	4.35 (1.52)	4.98 (1.49)	-3.215**
	부모가 쏟아내듯이 자기 이야기만 과도하게 한다.(말을 길게 하는 부모의 말을 끊지 못한다.)	3.94 (1.40)	4.63 (1.48)	-4.079***
	자녀와 부모가 문제 및 상황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한다.	4.22 (1.26)	4.61 (1.32)	-2.551*
회기의 제한	회기가 제한적이므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한다.	4.59 (1.52)	5.17 (1.54)	-2.890**

\* $p < .05$ , \*\* $p < .01$ , \*\*\* $p < .001$

### (5) 청소년동반자의 학력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청소년동반자 학력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을 할 때는 학력보다는 연령과 결혼유무, 자녀유무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추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6) 청소년동반자의 전공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청소년동반자의 전공에 따라 부모상담에서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54개 문항 중 2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후분석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어려움을 경험하는 평균점수로 경향성을 보면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한다’는 문항에서는 임상전공, 상담전공, 교육학전공(상담전공 외 교육학), 사회복지전공에 비해 심리전공(상담·임상전공 외 심리학), 청소년학전공이 더 어려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만날 때 청소년동반자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생긴다’는 문항에서는 교육학 전공에 비해 심리전공, 임상전공, 청소년전공, 사회복지전공, 상담전공이 어려움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청소년동반자의 전공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 문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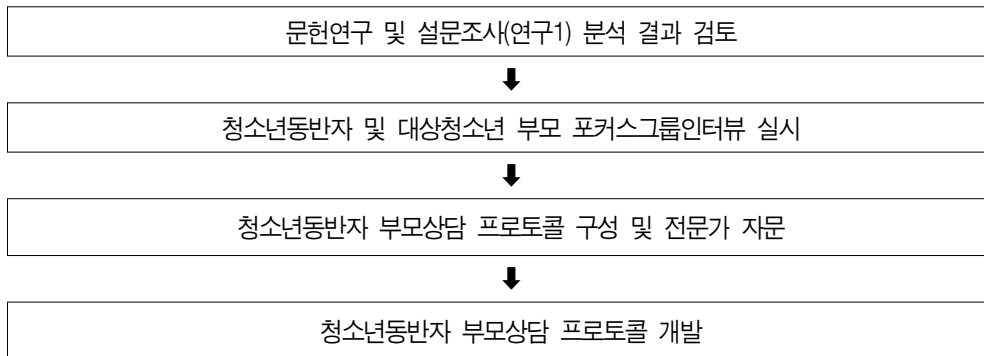
문항	상담 <sup>가</sup>	임상 <sup>나</sup>	사회복지 <sup>다</sup>	교육학 <sup>라</sup>	심리 <sup>리</sup>	청소년 <sup>사</sup>	기타 <sup>바</sup>	F	사후 분석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상담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청소년동반자의 전문 성에 대해 의심한다.	3.68 (1.52)	3.00 (.00)	3.98 (1.35)	3.83 (1.37)	4.88 (1.49)	4.05 (1.58)	4.19 (1.27)	2.153*	-
청소년 동반자 안전문제	부모를 만날 때 청소년 동반자(본인)의 안 전에 대한 염려가 생 긴다.	4.03 (1.58)	4.25 (.95)	4.25 (1.33)	3.53 (1.35)	4.74 (1.69)	4.21 (1.32)	3.46 (1.81)	2.167*	-

## IV. 연구2.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 연구

### 1. 연구방법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서 문헌연구, 부모 및 청소년동반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 부모특성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도출해낸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 구성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구성안에 따라 프로토콜을 수정·보완하였다.

### 2. 연구절차



#### 1) 청소년동반자 및 대상청소년 부모 포커스그룹인터뷰 실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질문지는 아동청소년상담 박사 1인, 상담 및 교육심리 전공 교육학 박사 4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한 후 부모 및 청소년동반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2)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구성

청소년동반자 대상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구성하였다. 부모개입에 대한 절차를 도식화 하여, 각 개입별 목표와 특성을 수립하여 활동 내용을 구성하고 부모상담 프로토콜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 3) 현장전문가 자문 평가

청소년동반자의 현장활용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학 박사 1인과 현장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1인의 자문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시의적절성을 비롯한 현장활용도를 평가하고, 프로토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프로토콜을 수정·보완하였다.

## 3. 연구결과

### 1) 청소년동반자 및 대상청소년 부모 포커스그룹인터뷰

#### (1) 연구대상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서 부모 및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비교적 경력이 오래된 청소년동반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하였고, 이 중 부모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는 대상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석한 청소년동반자는 총 8명으로 전일제 청소년동반자가 2명이었고, 시간제 청소년동반자가 6명이었다. 연령 및 청소년동반자 경력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정보 (청소년동반자)

구분	지역	성별	연령	동반자 형태	청소년동반자 경력
청소년 동반자	경기	여	46	전일제	5년 8개월
	경기	여	49	전일제	3년 8개월
	경기	여	48	시간제	5년 6개월
	경기	여	50	시간제	2년 9개월
	경기	여	33	시간제	3년 5개월
	경기	여	32	시간제	3년
	경기	여	55	시간제	6년
	경기	여	49	시간제	2년

인터뷰에 참석한 대상청소년 부모는 총 3명으로, 평균 3개월의 상담회기를 가졌다. 연령 및 상담회기는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정보 (부모)

구분	지역	성별	연령	상담회기
부모	경기	여	48	약 3개월
	경기	여	46	3개월 /12회기
	경기	여	47	3개월 /10회기

(2) 청소년동반자 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 결과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한 FGI를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의 주제와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4가지의 주제는 부모상담의 중요성, 부모상담의 어려움, 효과적이었던 개입, 그리고 매뉴얼 제작 시 요구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상담의 중요성’에는 3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는데, 부모상담의 효과, 효과와 관련된 변인, 찾아가는 상담에서 있어 부모상담의 의미 등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부모상담의 어려움’에는 모두 4개의 범주가 추출되었으며, 여기에는 청소년동반자 사례의 특성, 부모상담의 고비, 부모 개인상담의 의뢰문제, 그리고 구조적 문제 등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효과적이었던 개입’이라는 주제 하에 전문성과 신뢰, 성공적인 첫 면담, 실제적인 도움, 지역사회 연계 등 4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인 ‘매뉴얼 제작 시 요구사항’은 매뉴얼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부가 콘텐츠와 참고자료 등 2개의 범주로 이루어졌다. 각 주제와 범주, 그리고 범주별 하위범주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 청소년동반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주제	범주	하위범주
부모 상담의 중요성	부모상담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개입 여부에 따라 확연한 차이</li> <li>• 상담기간을 단축시켜 줌</li> </ul>
	효과와 관련된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어릴수록 더 중요함</li> <li>•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 중요함</li> <li>• 부모의 동기가 낮을수록 더 중요함</li> </ul>
	찾아가는 상담에 있어 부모상담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접촉이 용이하여 부모상담에 유리</li> <li>• 동반자 사례의 특수성(문제의 심각성, 내담자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부모를 자원으로 끌어들이 필요</li> <li>• 내담자 생활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개입지점이 분명히 드러남</li> </ul>
부모 상담의 어려움	사례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 저자원의 동반자 사례 특성</li> <li>• 자녀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한 부모의 낙담과 포기</li> </ul>
	부모상담의 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에 나타나는 부모와의 경쟁구도와 실패 경험</li> <li>• 상담자역할 등 상담구조화의 기틀잡기</li> </ul>

주제	범주	하위범주
	부모 개인상담의 의뢰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타 기관으로 의뢰하도록 내규화되어 있음</li> <li>타 기관 의뢰 시 탈락률 높음</li> <li>타 기관 의뢰보다 자녀문제를 계기로 부모 및 가족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쪽이 유리함</li> </ul>
	구조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를 내담자로 하는 상담은 지양되며 상담실적으로 인정 안 됨</li> <li>짧은 상담기간으로 인해 부모상담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li> <li>부모상담 전문 인력이 없음</li> </ul>
효과적이었던 개입	전문성과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한 부모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잡기</li> <li>심리검사 등 객관적 정보 전달</li> </ul>
	성공적인 첫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의 마음을 얻기</li> <li>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위로</li> <li>강점에 대한 강조</li> </ul>
	실제적인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양육기술 훈련</li> <li>과제 부여와 확인</li> </ul>
	지역사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자원을 연계</li> <li>심리상담 외의 서비스</li> </ul>
매뉴얼 제작시 요구 사항	매뉴얼의 형식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Q &amp; A 형식으로 서술</li> <li>내담자 문제 유형별 구체적, 실제적 전략</li> </ul>
	부가 콘텐츠와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전한 첫 회기 면담 매뉴얼(전화/대면)</li> <li>간단한 가족 자가 진단 척도</li> <li>부모상담에 대한 동의서 양식</li> <li>상담자 소진 예방법</li> <li>참고자료 첨부(추천도서, 교육자료, 법률정보 등)</li> </ul>

### ① 부모상담의 중요성

FGI에 참여한 청소년동반자들은 청소년상담에 있어 부모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동의를 표현하였다. 이는 청소년동반자를 위한 부모상담 매뉴얼 개발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는 주제로서 본 연구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청소년상담의 효과가 부모개입 여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며 부모개입이 잘 이루어졌을 때 상담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상담의 효과는 자녀가 어릴수록, 내담자의 현재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 비중이 커지며, 상담동기가 낮은 부모일수록 부모상담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그만큼 상담자가 공을 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인 청소년동반자 서비스의 경우 일반 청소년상담에 비해 부모상담이 가지는 의미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내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부모와의 접촉이 용이하여 개입에 유리하고, 내담자 생활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개입지점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위기정도가 심각하고 보유 자원이 빈약한 청소년동반자 사례의 특성상 부모를 자원으로 끌어들이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 ㉠ 부모상담의 효과

- 부모개입 여부에 따라 확연한 차이

그게 개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정말 차이가 크죠.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의 바램을 얘기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동반자 B)

- 상담기간을 단축시켜 줌

상담을 20회기 한다면 같이 하는 경우에는 10회기 정도로 앞당겨질 정도로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동반자 B)

## ㉡ 효과와 관련된 변인

- 자녀가 어릴수록 더 중요함

초등학생은 부모님 개입을 안 하면 상담 자체가 안 돼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행동이나 아이들의 패턴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부모님 안에서 환경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상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동반자 B)

-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 중요함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신경증이나 정신증 아이들이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부모님을 매주 뵙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라든지 소통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가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나 부모님으로서 어느 정도 탐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찾아가던지 뵙던지 해서...(동반자 E)

- 부모의 동기가 낮을수록 더 중요함

아이러니하지만 부모님의 문제가 깊을수록 부모님이 절대로 안 변하고, 3, 4회 부모상담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다른 상담센터에 부모상담을 권하거나 해도 몇 번 다니시다 그만뒀 버리시고... 아 부모상담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벽에 부딪쳐서... (동반자 F)

법원명령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특히 부모님들이 바쁘시고 대부분 손을 놓는 경우가 많으시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압성을 가지고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도 하고 하니깐 그 과정에서도 친해지더라구요 (동반자 B)

## ㉔ 찾아가는 상담에 있어 부모상담의 의미

- 부모접촉이 용이하여 부모상담에 유리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동반자 상담은 가정으로 가잖아요. 거기로 가면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 매회기 찾아오기는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가면 부모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거 같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동반자 D)

- 동반자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모를 자원으로 끌어들이기 필요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몸도 불편하시고 경제적으로 교통비 때문에 오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할아버지를 많이 지지해 주려고 했어요. 힘든 부분을 들어드리고 할아버지가 힘들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저라는 거... 항상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를 하시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추수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반자 B)

- 내담자 생활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개입지점이 분명히 드러남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우리 애가 말도 안 하고 이상하다,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 해서 마침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갔는데, 그 집이 반지하인데 골목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어떤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두 분 다 저장강박증이 있으세요. 물건 주워다가 쌓아놓는, 어머니도 당뇨가 너무 심해서 걸지도 못하시고, 몇 달씩 안 씻는 엄마. 제가 그렇게 방문을 한 거는 잘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됐어요. 아버지와 만나서 아이의 힘든 부분을 말씀드리고... (동반자 H)

## ㉕ 부모상담의 어려움

청소년동반자들이 경험하는 부모상담의 어려움은 대부분 동반자 사례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동반자 대상 내담자가 지닌 문제나 위기 정도는 매우 심각하면서 그들



이 보유하고 있는 내적 외적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담자와 부모 모두 상담에 끌어들이기 어렵고 사례관리도 더 까다로운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경우 자녀 문제가 심각하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낙담하거나 쉽게 자녀를 돕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부모상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많은 동반자들은 동반자 상담경력이 시작되었던 초기에 소위 ‘강한 부모’를 다루는 데 실패하거나 부모와 경쟁적 구도 하에서 대립함으로써 상담자로서 어려운 고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비는 상담자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스스로 가지게 됨으로써, 그리고 부모에게 상담이란 무엇이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상담구조화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차츰 극복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상담의 어려움은 부모가 지닌 문제가 복잡할 때 부모에 대한 상담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지역 센터의 내부 규정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개입을 우선시하고 부모는 단지 조력자, 협력자로 포함하는 관점을 강조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정상 부모 개인 상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렇게 의뢰된 경우 상담 탈락률이 높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동반자들의 합의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FGI에 참여한 몇몇 동반자들은 이왕에 자녀문제로 어렵게 상담받기로 결정하여 상담을 시작한 부모들이 기관을 옮겨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상담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자녀문제를 계기로 부부와 가족의 문제까지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부모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함께 다루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타 기관에 의뢰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조적인 문제들이 동반자의 부모상담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모상담이 상담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상담의 연장으로 실적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점, 3개월 안에 끝내는 단기상담이라는 동반자 상담의 포맷으로는 부모상담까지 충분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모상담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인력이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 ㉠ 사례의 특성

### • 고위험 저자원의 동반자 사례 특성

사례 배정할 때 동반자에게 더 어려운 사례를 많이 주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위기상담도 많고요. 근데 노하우가 없으면 이걸 선불리 줄 수가 없어요. (동반자 B)

동반자 사례가 저희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서 요청되기 때문에 일반상담 사례 보다는 좀 더 심각하고 가정환경도 열악하고 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 일터에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더 심약하셔서 아예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을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협력이 잘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도 많고... (동반자 C)

- 자녀문제 심각성으로 인한 부모의 낙담과 포기

정말 방관자적으로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으니 선생님이 어떻게 해 주세요... 아이의 분노 게이지가 너무 심하거나 부모를 팬다거나 집의 물건을 부수거나 이래서 부모님과 아이가 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아예 관여를 안 하시려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하고 컨택을 해서 부모상담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죠. (동반자 C)

## ㉠ 부모상담의 고비

- 초기에 나타나는 부모와의 경쟁구도와 실패경험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부모랑 많이 경쟁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처음 6개월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부모를 협력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꼬시는 법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한바탕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반자 G)

처음에 한 1년 정도 아이들 변하는 게 안 보이고 제가 부모에 대한 기대를 너무 했나, 열과 혼신을 다하면 부모님도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아 이걸 아니다... 한 1년 정도 되니까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동반자 A)

- 상담자 역할 등 상담구조화의 기틀잡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상담 구조화라는 부분에서 내가 상담자로서 돕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정리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머니 상담을 권유했을 때 선생님도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느냐고 대뜸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마가 상담을 오시는 게 개인상담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 온다는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반자 E)

## ㉡ 부모 개인상담의 의뢰 문제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타 기관으로 의뢰하도록 내규화

엄마가 정말 신경증적으로 심각하거나 그런 경우는 개인상담이 꼭 필요한데 저희가 그거는 안되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결하면 거기는 6번까지만 무료예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동반자 C)

- 타 기관 의뢰 시 탈락률 높음

정말 아쉬운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 내담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 두 분이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냥 상담만 가지고 되실 분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같이 받으셔야 되는데 시간 제 동반자로서 한계를 참 많이 느껴요. 몇 번이나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계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안 가시고...(동반자 H)

저희가 엄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십시오 하면 안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부담스러우신 가봐요. (동반자 C)

- 타 기관 의뢰보다 자녀문제를 계기로 부모 및 가족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쪽이 유리함

제일 아쉬운 게, 아이 상담하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협력을 하시는 편이잖아요. 부부상담은 안 하셔도... 부모를 부르기 참 좋은 케이스인데,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아이 상담하면서 엄마를, 부모상담으로 시작은 했지만 엄마 개인상담 식으로 했더니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아이한테도 협조적이고. (동반자 C)

건가에 다녀오시고서 왜 안 가시냐고 하면 대부분 만족도가 낮으시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아이 때문에 만난 상담자가 좀 더 편한 거 같아요. (동반자 H)

## ㉔ 구조적 문제

- 부모를 내담자로 하는 상담은 지양되며 실적으로 인정 안 됨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부모상담을 5회기로 제한하고 한 회기당 5,000원씩 받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저희 규정이 그래요. 따로 하면, 같이 하면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성인들이 자꾸 상담을 해달라고 하니깐. (동반자 G)

센터에서는 청소년 중심으로 하되 협력자로서의 상담이지 엄마 개인 상담은 아니니까 그걸 제한을 하는 거죠. 카운트는 따로 안 되니까... 지금은 청소년만 카운트가 되는 거죠. (동반자 C)

- 짧은 상담기간으로 부모상담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우리가 상담기간이 무한정이 아니고 3개월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8회기 만나다 보니까 가족에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히 어머니가 40년을 혼자만 지내온 어머니라서 누구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아이가 가진 문제보다 어머니가 가진 문제가 더 컸어요. 그래서 아이는 8회기에 종결을 하고 어머니를 상담하게 된 거죠. 서류상으로는 청소년상담을 한 걸로 하고. (동반자 B)

저는 3개월 개입하고 또 텀을 주고 또 3개월 개입하고... 그런 식으로 3년을 꾸준히 만난 아이들이 더 좋아지고 부모님도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동반자 A)

- 부모상담 전문인력이 없음

동반자로서 한계점을 참 많이 느껴요. 차라리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부모를 담당해서 상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때는 엄마 아빠 아이 막 엉켜서 가는 부분들이 상담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할 때라 있어요. 부모상담만 따로 맡아서 해줄만한 전문인력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동반자 H)

### ③ 효과적이었던 개입

청소년동반자들이 그동안의 사례와 상담경험을 되돌아볼 때 특히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는 부모개입 요소로 전문성과 신뢰, 성공적인 첫 면담, 실제적인 도움, 지역사회 연계 등이 도출되었다. 먼저, 강한 부모에게 휘둘리지 않고 상담자로서 중심을 잡는 것과 심리검사 해석이나 참고자료 소개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상담자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신뢰를 얻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상담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첫 면담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성공적이었던 첫 면담의 특징에는 부모가 발품을 팔아 일일이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줌으로써 마음을 쉽게 열게 만들어 주었던 점, 자녀의 어려움보다 먼저 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었던 점, 잘못된 것보다는 부모가 잘해 온 것과 강점을 찾아내 칭찬하고 지지해 주었던 점 등이 거론되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양육기술의 훈련과 과제 부여를 통한 실제적인 도움의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심리 외적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이 부모상담과 개입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 전문성과 신뢰

- 강한 부모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잡기

청소년 뒤에는 더 강력한 부모가 항상 존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썬 어머니를 만나면 참 절충을 하고 조절을 한다는 게 어려워질 때가 있지만 부모님이 어느 정도 탐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금 힘을 주고 얘기하려고 해요. (동반자 E)

- 심리검사 등 객관적 정보 전달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하면 절대로 안 될 거 같은 정형화되고 바뀌지 않는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TV 프로그램이나 다큐프라임, 지식채널 같은, 우리가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참고할만한 자료. 제가 자녀를 통제하려는 아버님한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동반자 F)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 부모님을 볼 수 있으면 꼭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 그런 방면으로 부모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동반자 E)

## ㉡ 성공적인 첫 면담

- 부모의 마음을 얻기

은둔형 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부모님이 억지로 데리고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면 좀 더 친밀하게 저를 맞아주시는 것 같아요. 찾아가고 하니까 아, 이 분이 뭔가 도와주실려고 오셨나 보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동아줄을 만나듯이... (동반자 A)

-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위로

애 많이 쓰셨고 수고하셨고 부모님이 아무리 잘 할려고 해도 아이들이 부모님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면 이해받는 느낌 때문인지 조금 풀어놓으시고... (동반자 C)

저는 부모상담을 증점적으로 해요. 아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부모를 먼저 오시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는지, 부모의 죄책감이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로 잘

고셔요. (동반자 G)

- 강점에 대한 강조

늘 칭찬을 해요 끝없이. 그래서 부모가 자신감이 생기면 좋죠. 초반 1회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실 거다, 이런 멘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는 부모님에게 들어야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많이 주면 약간 녹으시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지시고, 그 작업을 초반에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동반자 C)

## ㉞ 실제적인 도움

- 구체적인 양육기술 훈련

한쪽은 지지를 많이 해주고 다른 한쪽은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해보라고 해요. 수용하는 법, 허용 늦추기 등 구체적인 기술을 어머니와 함께 연습하고... 아이랑 소통이 안 되면 먼저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부터 접근하도록 해요. 대화 안 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멘트를 해 줄지 일주일 동안 한번만 해보고 오라고 해요. 포스트잇에 써서라도 해보라고 하고 대화 안 하려고 하는 아이에게는 얼굴 안 보고 얘기해 주기라도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동반자 G)

- 과제 부여와 확인

그런 부분을 계속 연습도 하고 숙제도 내 주고 한번이라도 했으면 대단하다 그러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2번만 해봐라. 그래서 부모가 자신감이 생기면 좋죠. 지속적으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매일 돌이켜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반자 G)

## ㉟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찾아가는 상담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조손가정은 희망상자 서비스나 그런 게 있으면 항상 리스트에 올라가죠. (동반자 B)

- 심리상담 외의 서비스

문화체험을 간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엄마들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제주도 체험이 있었거든요. 어머님도 처음 경험한 거고, 거기 갔다 오고서 아이하고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효과가 좋을 거 같아요. (동반자 B)

사회복지사 역할이 되는 거죠. 저도 중간에 지금 내가 상담을 하고 있는 거 맞나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동반자 B)

#### ④ 매뉴얼 제작 시 요구사항

네 번째 주제로 향후 청소년동반자를 위한 부모상담 매뉴얼 제작 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구사항들이 논의되었다. 먼저, 매뉴얼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Q&A 형식으로 서술될 것, 내용적 측면에서는 청소년 내담자 문제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담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부가 콘텐츠와 참고자료로는 1회기 면담 매뉴얼(전화 면담/ 대면 면담)과 가족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간편 자가 진단 척도, 부모상담 동의서 양식, 상담자 소진에 방법, 기타 추천 도서 및 교육자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그 외에도 찾아가는 상담자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문제와 대처방법, 부모로 하여금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 대화법, 그리고 개방적 질문, 관계성 질문 등 유용한 질문 목록 등이 매뉴얼에 포함되기를 희망하였다.

#### (3) 부모 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 내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FGI와 결과는 앞서 살펴 본 청소년 동반자를 대상으로 한 FGI 분석 결과와 그 주제나 범주 면에서 나란히 병행하며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크게 3가지의 주제와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3가지의 주제는 부모상담의 중요성, 기억에 남는 개입,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바라는 점 등으로 나타나 동반자 FGI에서 도출된 4개의 주제 중 ‘부모상담의 어려움’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주제가 언급되었다. 이는 FGI 참여 대상자들이 모두 성공사례의 부모들로 섭외되어 상담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주제인 ‘부모상담의 중요성’에는 부모상담의 효과, 그리고 효과와 관련된 변인 등 2개의 범주가 포함되었고, 두 번째 주제인 ‘기억에 남는 개입’은 전문성과 신뢰, 첫 면담의 중요성, 구체적인 기술과 처방, 감동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센터에 바라는 점’에는 구조적인 면과 서비스 측면, 2가지 범주의 요구사항이 제시되었다. 각 주제와 범주, 그리고 하위범주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부모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주제	범주	하위범주
부모 상담의 중요성	부모상담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 부모, 상담자 삼위일체</li> <li>• 비협조적인 부모를 한 팀이 되게 함</li> </ul>
	효과와 관련된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편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li> <li>•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빨리 좋아짐</li> </ul>
특히 기억에 남는 개입	전문성과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li> <li>•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신뢰</li> </ul>
	첫 면담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면담에서 상담동기 형성</li> <li>• 기선제압</li> </ul>
	구체적인 기술과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양육기술을 연습하고 처방함</li> <li>• 의사소통, 갈등해결 기술 학습</li> </ul>
	감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모상담 실시</li> <li>• 상담시간 외의 전화와 관심</li> </ul>
센터에 바라는 점	구조적인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기간의 연장</li> <li>• 상담자 변경되는 일 없었으면</li> </ul>
	서비스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상담 외에 다른 상담서비스 연결해 주었으면</li> <li>• 문화체험 등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li> </ul>

### ① 부모상담의 중요성

FGI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 상담에 있어 부모를 함께 상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동반자들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녀-부모-상담자가 삼위일체가 되는 부모상담을 통해 자녀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처음에 비협조적이었던 배우자까지 부모상담을 통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부모상담의 효과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부모상담의 효과는 특히 형편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엄마의 변화가 클수록 아이의 문제도 빨리 해결되는 상승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⑦ 부모상담의 효과

- 아이-부모-상담자 삼위일체

상담 끝나면 저를 꼭 만나서 상담해주시고 해서 아이랑 저랑 선생님이랑 삼박자가 착착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상담을 했다, 애가 어떤 반응을 했다,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니 제가 아이를 대하기가 편하죠. 애가 그런 표현을 했다는데 애가 좀 달라졌네, 좀 좋아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그냥 애만 상담하는 것 보다 조금씩 조금씩 애도 마음의 문을 열더라구요. (어머니 A)



- 비협조적 부모를 한 팀이 되게 함

아빠가 애를 안 보려고 했거든요. 워낙 기대가 커서 아들 하나라 실망이 컸나 봐요. 그레 저는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아빠 상담을 남자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조금 바뀌더라구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이제 좀 다독여주고 하니까 애가 좀 안정이 많이 됐죠. 병원 의사 선생님보다 저는 상담 선생님한테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A)

## ㉠ 효과와 관련된 변인

- 형편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관심이 없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형편이 안 좋을수록 그런 가정일수록 애들 걱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죠. (어머니 C)

-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빨리 좋아짐

애가 걱정되면 적극적으로 나서고...저는 너무 딸래미가 마음이 아프고 걸리더라구요. 그제 부모가 바뀌면 치료가 빠른 건데... 엄마가 행복해야 딸도 행복하다고 그 말이 정말 정답이더라구요. (어머니 C)

## ② 특히 기억에 남는 개입

FGI에 참여한 부모들의 경우 모두 성공적 사례의 부모님들로 상담에 있어 어려웠던 점보다는 상담자로부터 도움 받은 것, 상담자 개입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주로 많이 나누었다. 여기에는 부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신뢰, 특히 첫 면담에서 부모를 붙잡아 준 힘 있는 개입으로 상담동기를 형성해 준 점, 일반론적인 부모교육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양육 기술을 처방하고 이를 연습시켜 준 점,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부모상담을 병행해 준 성실성과 따뜻한 관심 등이 도출되었다.

## ㉠ 전문성과 신뢰

- 부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상담하고 나서 생각했죠. 어쩔 그렇게 나를 잘 캐치할 수 있었을까?...아, 달리 선생님이 아니구나. 내가 딸을 대하는 걸 보고 어른이 애를 대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처럼 유치하게 대한다는 걸 어떻게 딱 알지? (어머니 C)

-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신뢰

이쪽으로 전문가이신 거 같더라고요. 잘 꼬집어내시고... 하는 거 보면 딱 알잖아요. 애한테 하는 거 보면 믿음이 가죠. (어머니 A)

## ㉠ 첫 면담의 중요성

- 첫 면담에서 상담동기 형성

엄마가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첫 면담에서 제가 와 달았고 힘을 얻었죠. 살아야 한다고 엄마가 건강해야.. 처음 면담이 인상이 강했죠. (어머니 B)

- 기선제압

제 기를 눌렀던 것 같아요. 그 대화법이 좀 강하게 나갔죠. 다 내가 옳다고 살아왔는데, 제가 옳은 게 아니었어요. 이 선생님한테는. 제가 별별벌 거리니깐, 거의 뭐 헐썩해져서 막 울면서 얘기하니깐 선생님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 정도로 흔들리지 말고 중심잡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B)

## ㉡ 구체적인 기술과 처방

- 구체적인 양육기술을 연습하고 처방함

자신감을 키워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좋아질 거다. 선생님이 얘기해 준대로 처방해준 대로 저는 선생님만 믿고 그렇게 했죠. (어머니 B)

- 의사소통, 갈등해결 기술 학습

애가 이렇게 물어볼 땐 이렇게 대답하고, 애가 감정을 표현하면 어 그러니? 하면서 수용을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엄마 생각을 말하라고요. 그렇게 했죠. 집에 와서도. 근데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저를 많이 내려놓았죠. (어머니 B)

## ㉔ 감동

-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모상담 실시

전에는 만나지는 않고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이야기 해주시고 했는데, 이번 선생님은 한번도 안 빠지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 A)

- 상담시간 외의 전화와 관심

상담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계속 신경 써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영화도 보여주시고 학교 잘 다니는지 가끔씩 연락도 주시고...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해서 선뜻 오게 됐어요. (어머니 C)

## ③ 센터에 바라는 점

인터뷰에 참여한 부모들은 동반자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바라는 점을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가장 크게 동감한 부분은 상담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었고, 그 외 상담자가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의견, 개인상담 외에 사회성이 부족한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집단상담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상담 외에 문화체험 등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2)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구성

### (1) 구성단계

선행연구, 청소년동반자 설문조사, 현장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상담 매뉴얼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부모상담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 및 현장에서의 청소년동반자 요구조사 결과, 청소년동반자를 위한 부모상담 매뉴얼이 부재하여, 부모개입이 필수적인 고위기 사례의 부모 개입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즉, 대상청소년의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부모상담 프로토콜은 청소년동반자가 주로 만나게 되는 고위기청소년의 부모 특성, 그리고 이들을 개입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확인하였다.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방향과 주안점을 제안하였다.

### 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프로토콜 개발 고려사항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연구 1)를 바탕으로 프로토콜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동반자 변인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으로는 2-30대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부모의 심리적 문제 호소에 따른 청소년동반자의 소진 문제에 대해 프로토콜에서 다룰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동반자 사업 이해 부족 및 부모자신의 문제 합리화, 잘못된 양육태도 고집 등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역할 명확화, 대처 방안 제공 등의 방식으로 프로토콜에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회기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안전에 대한 염려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프로토콜 개발 시 고려사항

구분	연구 결과	고려사항
동반자 변인	2-30대 부모상담 경험 어려움 높음(전문성 의심, 선입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대상 상담경험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대한 개입방안 제시</li> <li>• 나이 어린 상담자, 양육경험 없는 상담자에 대한 전문성을 다루는 방법 제시</li> </ul>
	동반자 소진 (심리적 문제 호소 시 다루어주지 못함으로 인한 부담감, 죄책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자 역할(경계) 제시</li> </ul>
부모 변인	동반자 사업이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자 사업, 동반자 역할에 대한 이해 제시</li> </ul>
	부모 자신의 문제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부모 다루는 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li> </ul>
	잘못된 양육태도 고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태도, 의사소통 방법 교육 정보제공</li> </ul>
	지나친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존성이 높은 부모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li> </ul>
	동반자를 통한 자녀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li> </ul>
	부모의 심리적 문제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적 문제 다룰 수 있는 기관, 서비스 안내</li> <li>• 적극적 연계 역할 제시</li> </ul>
	부모만남의 어려움(생계 등 이유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만남의 어려운 경우에 대한 방안 제시</li> </ul>
	상담의 필요성 못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대처 방안 제공</li> </ul>
환경 변인	회기제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상담, 문제해결중심 전략 제시</li> <li>• 부모상담을 위한 회기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 제시</li> </ul>
	안전에 대한 염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에 대한 대처 방안 제공</li> </ul>

## ②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에 따른 프로토콜 개발 고려사항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바탕으로 프로토콜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청소년동반자로부터 보고된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 효과적인 개입방안, 매뉴얼 방향, 추가내용, 효과적 개입 방안을 고려하여 프로토콜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6.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에 따른 프로토콜 개발 고려사항

구분	연구 결과	고려사항
동반자의 어려움	고위험 저자원 사례특성 부모의 낙담과 포기	부모개입의 필요성과 부모에 대한 격려와 지지 강조
	부모상담의 고비 (초기 부모와의 경쟁구도와 실패경험, 상담자 역할 등 구조화)	1회기 상담구조화
효과적인 개입방안	강한 부모에 휘둘리지 않기	부모역할에 대한 상담구조화 기틀 제공
	심리검사 등 객관적 정보 전달	필요시 활용 방안 제시
	부모 마음 얻기, 공감, 위로	부모상담 방법 시 강조
	강점 강조	부모상담 방법 시 강조
	구체적 양육기술 훈련	부모교육, 양육기술 훈련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시
	지역사회 연계	부모개입 시 강조
매뉴얼 방향	문제유형별 구체적, 실제적 전략	유형별 부모상담
	첫회기 면담 매뉴얼(전화, 대면)	1회기 부모상담 구조화
	간단한 가족 자가 진단척도	진단 양식 고려
	부모상담 동의서 양식	진단 양식 고려
	상담자 소진 예방법	스트레스 관리 방안 작성
매뉴얼 추가 내용	참고자료 첨부(추천도서, 교육자료, 법률정보)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대화법, 개방형질문, 관계성 질문 등 유용한 질문 목록, 갈등해결기술 전략, 구체적 양육기술 연습	활용자료 첨부
효과적 개입 (부모 보고)	전문성과 신뢰	부모상담 방법 시 강조
	첫면담의 중요성	부모상담 방법 시 강조
	구체적 기술과 처방	부모상담 방법 시 강조

### ③ 부모상담 프로토콜의 방향 및 주안점

첫째, 부모개입 시작단계부터 종결까지 절차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코칭으로 구분하여 부모개입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고위기 청소년동반자 사례 특성에 따른 개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넷째,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청소년동반자들이 실제로 활용 가능하고 유용한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제작한다.

## 3)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

### (1) 부모상담 프로토콜 구성 및 세부내용

본 부모상담 프로토콜은 크게 제 1장 부모개입 시작하기, 2장 부모개입하기, 3장 특수문제 이해하기, 4장 어려운 상황 대처하기, 5장 활용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청소년과 부모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이해, 상담관계 형성, 상담에 대한 구조화와 사전 사례개념화를 담았다. 이는 부모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동반자의 사전 준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둘째, 청소년동반자의 부모개입 방법을 부모상담, 부모코칭, 부모교육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청소년동반자가 부모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교육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개별지원에서 부모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는 부모상담을 진행하고, 이보다는 단회적인 훈련이나 조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모코칭을 계획하게 된다. 한편, 부모에게 자녀이해, 부모됨의 이해, 대화하기 등 구조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동반자가 만나게 되는 대상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모개입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혼가정, 재혼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의 특성을 기술하였고,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상담 시 유용한 질문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출, 비행, 폭력 가족, 저소득가정, 인터넷·스마트폰중독,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과 같은 위기 유형에 따른 부

모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과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청소년동반자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각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을 Q&A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청소년동반자가 실제로 부모를 만나 개입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각 내용은 부모상담에서 주로 활용하게 되는 의사소통 방법, 양육태도 점검, 부모 자녀 갈등다루기, 청소년 자녀 특성이해, 분노 조절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부모에게 배포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상담이나 코칭, 교육 장면에서 필요시 발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모상담 프로토콜의 개괄은 표 IV-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7. 부모상담 프로토콜의 개괄

구분	주요내용	고려사항	
1장 부모개입 시작하기	사전점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청소년 사례에 대한 이해</li> <li>•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이해</li> <li>- 부모 발달단계 파악하기</li> <li>- 가족 구조 분석하기</li> <li>- 부모 상담태도 분석하기</li> </ul>	부모개입에 앞서, 대상청소년과 가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개입초기 관계형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인상 관리하기</li> <li>• 반갑게 인사하기</li> <li>• 부모의 어려움 공감하기</li> <li>• 부모의 양가적 태도 이해하기</li> <li>• 관계를 순조롭게 하는 상담자 행동</li> </ul>	부모개입 시작 시 중요한 관계형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
	구조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구조화의 의미</li> <li>• 상담구조화의 중요성</li> <li>• 상담구조화 하기</li> </ul>	상담구조화의 중요성과 절차에 대하여 제시
	사례개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개념화의 의미</li> <li>• 사례개념화를 돕는 질문들</li> </ul>	사례개념화의 의미와 방법에 대하여 제시
2장. 부모 개입하기	개입방법 결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개입방법 결정</li> </ul>	용어 정의와 부모개입 방법 결정시 고려사항 제시
	부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상담 두려움 이겨내기</li> <li>• 부모상담의 과정</li> <li>- 다룰 문제 선정</li> <li>- 구체적 목표 합의</li> <li>- 전략 구성 및 개입</li> <li>- 상담평가</li> <li>- 필요시 관련 기관 의뢰하기</li> </ul>	부모상담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		주요내용	고려사항
	부모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룰 주제 선정</li> <li>- 양육태도</li> <li>- 의사소통방식</li> <li>• 부모코칭 전략 구성</li> <li>- 구조화</li> <li>- 문제 상황 분석 및 개입전략 도출</li> <li>• 개입전략 실시</li> <li>- 자녀이해하기</li> <li>- 자녀와 갈등 다루기</li> <li>- 자녀와 대화하기</li> <li>• 부모코칭 성과 평가</li> </ul>	<p>부모개입 시 주요하게 활용가능한 양육태도, 의사소통 방식을 중심으로 코칭 방법 제시</p>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li> <li>• 부모교육 프로그램 의뢰</li> <li>• 부모참가</li> <li>• 부모교육 성과평가</li> </ul>	<p>부모교육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p>
3장. 특수문제 이해하기	가족구조에 따른 부모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가정</li> <li>• 재혼가정</li> <li>• 다문화가정</li> <li>• 조손가정</li> <li>• 한부모가정</li> </ul>	<p>가족 구조를 반영하여 각 특성과 부모개입 방법 제시</p>
	위기유형에 따른 부모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청소년</li> <li>• 비행청소년</li> <li>• 폭력가족청소년</li> <li>• 장애청소년</li> <li>•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청소년</li> <li>• 저소득가정청소년</li> <li>• 학교폭력피해 청소년</li> </ul>	<p>위기유형에 따른 특성과 실제적으로 활용가능한 부모개입 방법 제시</p>
4장. 어려운 상황 대처하기	어려움에 따른 대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동반자·부모·환경 변인에 따른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과 대처방안</li> </ul>	<p>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Q&amp;A 형식으로 제시</p>
5장. 활용자료	활용가능 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자녀 의사소통 방법</li> <li>• 부모 양육태도 점검</li> <li>• 갈등상황 다루는 방법</li> <li>• 청소년 자녀 특성 이해</li> <li>• 분노 조절 방법</li> <li>• 자녀가 화를 돌을 때 부모가 할 일</li> <li>• 스트레스 해소 방법</li> <li>• 부모상담 시 유용한 질문</li> </ul>	<p>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코칭에서 실제로 활용가능한 자료 제시</p>



이와 같이 청소년동반자의 부모개입 과정은 대상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부모,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부모와의 만남 이후, 개입 방향을 결정하여 부모상담, 부모코칭, 부모교육을 결정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 때, 대상청소년의 위기유형이나 가족구조에 따른 특수문제를 이해를 바탕으로 개입을 진행할 수 있다. 부모상담과 부모코칭, 부모교육의 부모개입 절차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면 아래 그림 I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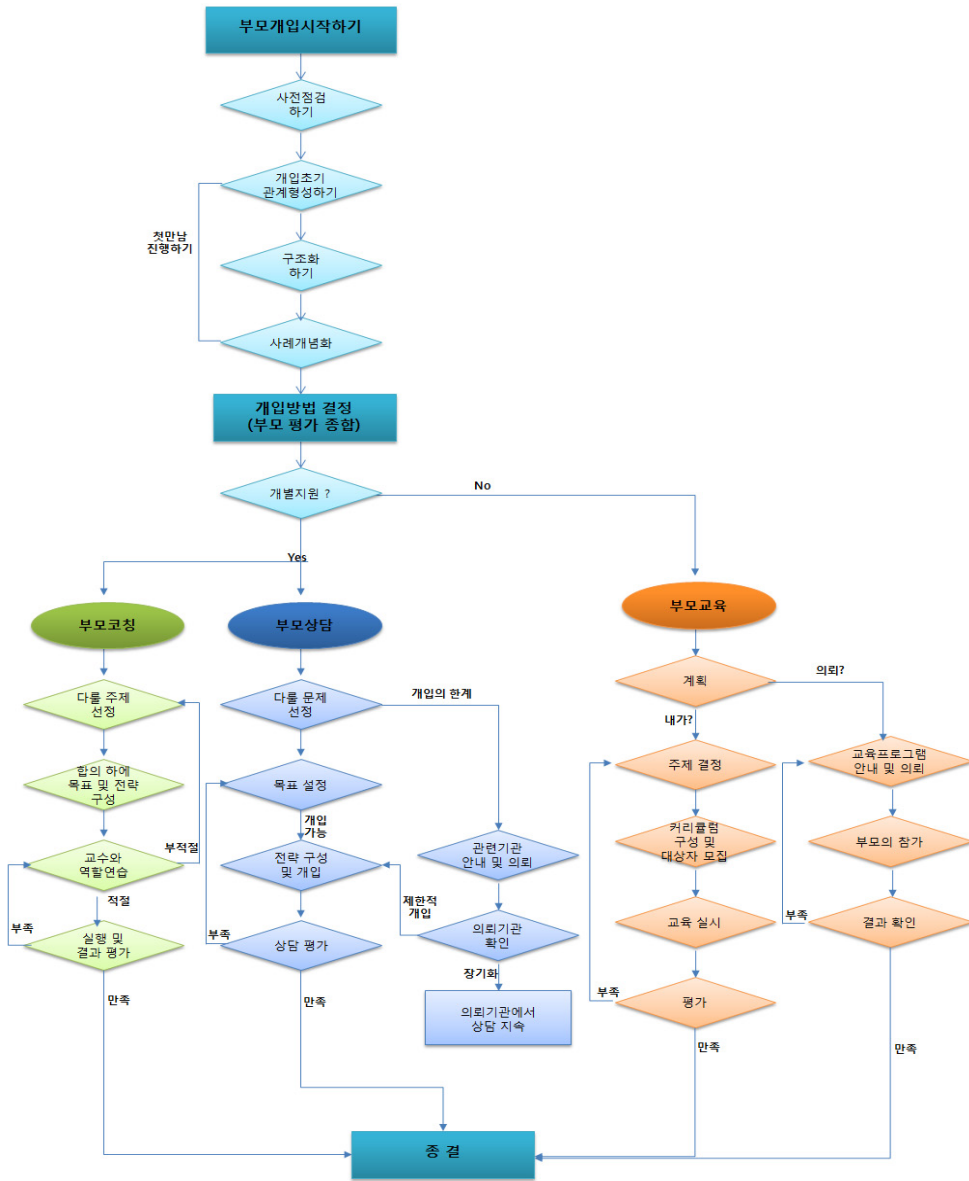


그림 IV-1. 부모개입 절차

### (3) 평가단계

부모상담 프로토콜의 현장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청소년동반자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부모상담에 오랜 경험을 가진 교육학박사 1인, 청소년동반자 1인의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상담 프로토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향후 수정 및 보완계획을 수립하였다.

#### ① 부모상담 프로토콜 전문가 평가 결과

본 프로토콜 내용의 적절성과 활용가능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동반자 및 부모상담 관련전문가 2인의 평가를 받았다. 관련전문가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상담전공 박사 1인(A)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상담을 오랜 기간 수행하였으며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실제적으로 활용하게 될 청소년동반자 1인(B)을 선정하였다.

전문가들은 평가문항을 통해 부모상담 프로토콜 내용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토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부모상담 프로토콜의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V-8. 부모상담 프로토콜 내용 평가 결과

질 문	평균 (5점 기준)
1. 매뉴얼 내용이 청소년동반자를 위한 부모개입 목적에 부합하는가?	4.5
2. 매뉴얼 내용이 청소년동반자 부모개입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가?	4.5
3. 매뉴얼 내용이 청소년동반자 부모개입에 필요한 요소로 구성되었는가?	5
4. 매뉴얼 내용이 청소년동반자 연수과정 운영으로 적절한가?	5
5. 전체 내용 구성이 청소년동반자 부모개입에 도움이 될 것인가?	5

전문가들은 현장활용도 평가문항을 통해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의 시의적절성, 목적성, 실용성, 유익성, 기여도를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으며, 프로토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V-9. 부모상담 프로토콜 현장활용도 평가 결과

질 문	평균 (5점 기준)
1. 본 매뉴얼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2. 본 매뉴얼이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3.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4. 본 매뉴얼을 고객(청소년동반자)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5.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4.5

매뉴얼의 적합성과 활용성 평가를 요청한 결과, 시의적절성(5점), 목적부합(5점), 실용성(5점), 유익성(5점), 기여도(4.5점) 면에서 평균 4.9점의 평가를 받았다. 즉, 부모개입 프로토콜 내용타당도에 참여한 현장전문가 2인은 본 프로토콜이 현장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개발되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부모상담 프로토콜 내용에 대한 세부 의견을 살펴보면 아래 표 IV-10과 같다.

표 IV-10. 부모상담 프로토콜 내용에 대한 세부의견

매뉴얼 내용		의견
제 1장 부모개입 시작하기	사전점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나이가 어리거나 초심자일 가능성이 많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을 대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음. 부모개입부터 종결까지 내담자를 돕거나 안내하거나 반응하는 등의 구체적인 상담자적 대화의 예를 들어준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li> <li>• 과거와 달리 상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부모나 청소년의 이전 상담경험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부분이 추가된다면 도움이 될 것임.</li> <li>• ‘축어록’이라는 용어는 상담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나 동반자 사례에서는 청소년과 상담하며 CYS-Net의 양식에 맞게 회기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회기보고서’나 ‘회기기록지’로 바꾸면 좋겠음. ‘축어록’이라는 말은 또 다른 과제를 부여받는 느낌임.</li> </ul>
	개입초기 관계형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대화 예를 첨부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음.</li> <li>• 상담 장면에서 남자를, 특히 아버지를 상담 장면에 참여시키기 어려움. 특히, 아동청소년상담의 경우 아빠(가장,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가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상담을 가지 못하게 할 경우 바로 상담이 종결될 수 있음. 아빠(가족관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를 상담 장면에 끌어들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도 필요함.</li> <li>• 상담은 내용이 중요하지만 ‘첫인상 관리하기’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다 익숙해져서 잊게 되는 내용을 상기시켜줌.</li> </ul>

매뉴얼 내용		의견
	구조화하기	• 일반 상담의 구조화와 크게 다를 게 없어서 부모상담 개입의 구조화로서 차별성이 없음. 동반자 프로그램 안내가 많아서 그런 내용은 부모 초기 면접 시 이미 이루어지는 것임.
	사례개념화	• 내용은 짧으나 적절함.
2장. 부모개입하기	개입방법 결정하기	• 부모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해나가기 힘든 비전문가임. 그러므로 상담과 교육이 같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각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또한 경제 및 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지속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유지하기 힘들므로 단기개입이 효과적일 때도 있음. 그러므로 문제유형이나 위기수준 등으로 구별하여 동반자가 모듈식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 • 부모상담, 코칭, 교육으로 나눈 것은 동반자들에게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것이어서 좋음.
	부모상담	• 부모개입 시 부부관계에 대한 탐색도 매우 중요함. • 내담자의 부모를 만나는 상담인데 자꾸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는 부모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절함.
	부모코칭	• I-message는 다른 상담이나 교육에서도 많이 안내되는 것인데 실제 동반자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모습임. •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몇 가지의 예를 넣어 주면 좋겠음.
	부모교육	• 부모교육은 동반자가 집단으로 묶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임.
3장. 특수문제 이해하기	가족구조에 따른 부모개입	• 최근의 다양한진 가족구조를 반영해줌.
	위기유형에 따른 부모개입	• 우울이나 학교부적응으로 은둔형이 된 청소년의 사례가 많아짐. 위기유형에 한 분류로 추가하면 좋겠음.
4장. 어려운 상황 대처하기	어려움에 따른 대처방안	• ‘부모가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에서 부모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음. 반복되는 느낌임.
5장. 활용자료	활용가능한 자료	• 부모는 역량부족으로 상담자를 또는 다른 도움이 되는 곳에 의존하려고 함. 호소문제 유형별 연계활용 자원 리스트를 안내가 필요함. •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료임

부모상담 프로토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프로토콜 내용에 대해 상담현장에서 사용가능할 수 있는 활용성이 뛰어나며, 부모개입 절차에 대한 체계적 안내가 제시되어 있어 필요 시 찾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상담 프로토콜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점으로는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사례에 대한 부담감과 시간 배분 고려, 수퍼비전에 대한 내용 추가, 초심자를 위한 상담가의 다양한 예시 추가, 위기수준별 부모개입 방안에 대한 추가를 제시하였다.

표 IV-11. 부모상담 프로토콜 내용 전반에 대한 의견

좋은 점	보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마다 목차를 보고 사전식으로 찾아볼 수 있음.</li> <li>• 3장의 특수문제 이해하기-부모개입에서 부모상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해 준 ‘유용한 질문’은 내담자 부모가 수치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객관적인 것이라고 생각됨.</li> <li>• 부모를 자극하지 않고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한 조력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li> <li>• 동반자가 상담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활용성이 뛰어남.</li> <li>• 상황별, 단계별로 체계적 안내가 잘 되어있음.</li> <li>• 부모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들어있어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 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자 사례는 3달의 개입이 원칙인데(예외는 있으나) 교육 차원이나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만나는 단회 부모면담을 넘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정도의 구조화는 동반자로서는 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체감이 됨. 적정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동반자로서는 고민이 될 것임.</li> <li>• 부모교육을 집단으로 하도록 안내된 것은 동반자가 소속된 센터에서 운영되는 연수팀이나 교육팀의 부모교육과 중첩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화하여 집단원들을 모으고, 뭉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김.</li> <li>• 사례를 진행하는 수퍼비전이 함께 해야 함을 어느 부분에 넣는 것이 좋겠음.</li> <li>•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다양한 상담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초심자를 중심으로 한 매뉴얼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초심자로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의 상담자적 대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장에서 내용에 맞는 다양한 상담자적 대화 및 반응의 예를 더 추가하면 좋겠음.</li> <li>• 동반자가 개입하는 경우는 상담실에도 찾아오지 못하는 위기수준의 청소년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요즘 다양한 유형의 특수아(지적장애, 지체 및 건강장애 등)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음.</li> <li>• 또한 청소년들의 문제유형뿐만 아니라 위기수준별 부모개입방법이 다를 수 있음. 대부분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별 위기수준에 따른 개입방안에 대한 안내가 있다면 도움이 될듯함.</li> </ul>

#### (4) 평가결과 요약 및 논의점

본 부모상담 매뉴얼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매뉴얼 수정 및 보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대상으로 한 내용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 전문가들은 부모상담 프로토콜이 전반적으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으며, 부모상담에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상담 프로토콜 내용이 청소년동반자들의 부모개입 특성을 고려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하였으며,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에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즉, 부모상담 프로토콜이 목적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그 구성내용이 타당하고 청소년동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초심상담자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예시 추가, 특수아 등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상담 내용 등 프로토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V. 요약 및 논의

### 1. 연구의 요약

정부의 청소년 현황 분석 결과,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자살, 비행, 정신건강 문제 등 위기 청소년을 약 87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이러한 청소년의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중이며, 이 중 위기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적 특성 외에 부모양육 태도, 가정환경 등과 같은 부모변인이 있으며, 부모상담을 병행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된다. 즉, 위기를 겪는 청소년의 적응과 문제 해결에 부모의 개인적 특성 혹은 양육태도 등이 중요한 변수이며,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개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청소년상담 영역에서는 부모에 대한 개입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특히, 청소년동반자가 만나는 대상청소년의 경우 이혼, 한부모가정 등 해체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자살, 폭력, 가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고위기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개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부모상담의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약 75%가 부모상담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부재하며, 부모상담에서의 어려움은 크나 이에 따른 체계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찾아가는 상담전문가 모형을 지향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인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상담에 대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둘째,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여 제시한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청소년동반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에서는 부모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위기청소년의 특징과 부모상담의 특징,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특징이 무엇인

지 살펴보았다. 이후 청소년동반자들이 실제적으로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청소년동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상담과 비교하여 청소년동반자 상담에서 부모 상담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약 78%로 나타나, 청소년동반자 상담에서의 부모상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별도 회기로 부모상담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청소년동반자의 어려움을 청소년동반자 변인, 부모 변인, 환경 변인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동반자 변인으로는 청소년동반자로서 상담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개입유능감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변인으로는 부정적·비협조적 태도,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부족, 청소년동반자 사업 이해부족, 통찰력 부족, 의존성, 부모문제에 대한 개입요구, 부모의 개인적 문제, 상담을 주도하려는 경향으로 범주화하였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같은 개인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변인으로는 회기의 제한, 청소년의 부모상담 거부, 안전문제에서의 어려움으로 범주화하였는데, 회기 제한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 변인에 따른 부모상담의 어려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에 따라 청소년동반자가 경험하는 부모상담의 어려움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30대 청소년동반자가 4-50대에 비해, 기혼에 비해 미혼 또는 자녀가 없는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전문가의 요구를 반영한 실제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동반자와 대상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동반자 인터뷰 결과, 부모 개입 여부에 따라 청소년상담의 효과가 확연히 달라지는데 부모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상담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 접촉이 용이하며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수준이 높고 자원이 부족한 사례의 특성 상 일반 청소년상담에 비해 부모상담이 가지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동반자들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사례의 특성(고위기 저자원), 부모 개인상담 의뢰의 어려움, 부모상담 상담실적 인정 불가, 제한된 회기와 부모상담 전문 인력 부족 등을 보고하였다. 한편, 강한 부모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 부모의 마음을 얻고 강점을 강조하여 성공적인 첫 면담을 갖는 것, 구체적인 양육기술을 훈련하고 과제를 부여하는 실제적인 도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었다.

실제적인 서비스 대상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와 부모와 상담자가 합심하여 부모상담을 하는 경우 효과적이라 하였으며, 부모가 변화되어야 청소년 상담



의 효과가 있음에 대해 동의하였다. 또한 부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경험할 때 상담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모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외에도 전화 통화나 관심을 보여주는 개입이 감동적이었으며, 구체적인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음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청소년동반자 대상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반영하여 실제로 활용 가능한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개입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제 1장 부모개입 시작하기에서는 청소년과 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구조화와 사례개념화를 구성하여 개입 준비 방안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2장 부모개입하기에서는 부모상담, 부모코칭, 부모교육을 구분하여 절차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3장 특수문제 이해하기에서는 가족 유형과 위기청소년 유형을 구분하여 특성과 이에 따른 부모개입방향, 유용한 질문목록으로 구성하여 부모개입 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구성하였다. 4장 어려운 상황 대처하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청소년동반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Q&A 형식으로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5장 활용자료에서는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개입 시 실제로 활용할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부모상담 프로토콜 초안을 작성하고, 현장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고, 시의적절성, 목적부합성, 실용성, 유의성, 기여도에 있어 적합성과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2. 논의 및 제언

청소년동반자는 찾아가는 상담 전문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살시도, 은둔형 외톨이, 학교폭력 피해, 가출, 인터넷중독 등 상담장면으로 찾아올 수 없는 문제 유형의 청소년들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청소년동반자들은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개입을 요구받는다(노성덕, 2008; 여성가족부, 2015).

따라서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상담이 쉽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 앞서 이론적 배경 등을 통해 검토하였는데, 요약하자면 ① 가족 내 문제를 외부에 노출하기 꺼리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 ②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경우 구조적 결손가정이 많아 부모의 상담 참여에 제약이 따르는 점, ③ 청소년동반자가 미혼 비율이 높아서 부모 개입의 어려움 토로, ④ 특수한 사례에 대한 부모상담 매뉴얼 부재 등이 그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부모개입이 성공적인 청소년

년 상담의 조건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동반자 자신들이 부모상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부모개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동반자들이 대상 청소년의 부모에게 개입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개발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동반자 개입을 중심으로 한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청소년동반자 대상청소년 부모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상담복지 정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동반자 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 분석은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로써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 전반에 걸쳐 부모개입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특성 및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화된 개입 프로토콜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는 2015년 현재 1,044명이다(여성가족부, 2015). 2016년에는 전일제동반자 20명이 증원될 예정이며, 청소년상담 장면 뿐만 아니라 군상담, 학교상담, 청소년보호시설 등에도 청소년동반자 배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동반자가 증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현재의 1,044명도 우리나라 상담 영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1,044명의 청소년동반자들이 표준화된 부모상담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상담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양질의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이 전문가 개인변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는데, 정책의 측면에서는 이런 변인이 가진 위험성으로 인해 효과성에 도전을 받아왔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은 훈련된 전문가들에게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장 활용과 피드백을 통해 부모개입의 수준을 높여가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상담을 진행하는 청소년동반자의 개입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사업의 효과성을 공고히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청소년동반자 정책 사업을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3차년에 걸쳐 수행되는 중장기 연구에 해당한다. 1차년도에서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 현장 활용 및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3차년도에 수정 보완된 프로토콜을 완성하여 전체 청소년동반자가 활용하도록 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파일럿 스터디를 하지 못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내용의 타당성과 현장활용성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1차년도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진들은 개발된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2차년도에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프로토콜은 청소년동반자들이 대상 청소년의 부모를 상담하도록 개발되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의 부모개입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주의하여야 한다.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부모의 특성과 대상청소년들의 특수 문제 등이 분석되어 프로토콜에 반영되었으므로 간혹 일반 청소년 부모상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석영, 이창호, 이동훈 (2014). 전문상담교사가 인식한 학교정신건강 문제 및 개입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2(1), 93-123.
- 고스게 유코 (2012). **은둔형 외톨이 사례연구: 한국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 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곽복선 (2015). **장애자녀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고통감내력의 조절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분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남상인, 안현의, 주영아, 한동우 (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청소년위원회.
- 권해수, 이지연, 지승희 (2009). 3급 청소년 개인상담: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교재. 한국청소년상담원
- 권해수, 조규필, 김범구, 허진석, 윤현선 (2008). **위기청소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두드림존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권현용 (2013). 청소년 동반자의 상담사례를 통한 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인문학논총**, 33, 151-181.
-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16(2), 295-308.
- 기채영 (2006). 놀이치료에서 부모상담의 치료성과요인 및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2), 41-58
- 김광웅 (2009).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실태조사 연구. **놀이치료연구**, 12(1), 47-63.
- 김광웅, 김화란 (2006). **놀이로 이해하는 우리 아이 처음만나는 놀이치료**.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김동일, 최수미 (2009).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상담지원서비스 효과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2), 279-295.
- 김동일, 최수미 (2008). CYS-Net 상담서비스 이용이 위기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9(3), 129-146.
- 김명자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문제행동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영숙, 윤여홍 (2001). **교사와 부모를 위한 특수아 상담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김은이, 오경자 (2014). 가족 내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2), 79-113.
- 김재엽, 최지현 (2005). 여대생의 아동경험이 정신건강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2), 27-47
- 김진이, 정문자 (2006). 어머니를 위한 상담활용부모교육(CUPEM)프로그램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4(7), 53-62
- 김차미 (2012).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통한 모-자녀 상호작용 변화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김현실 (2000). 청소년 비행행동 측정도구 개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1(1), 79-90.
- 김현주 (2014). 부모 양육스트레스가 장애아동 학대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재활복지**, 18(1), 113-134.
- 김현주, 손은경, 신혜영 (2005). **개정판 현장중심 부모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김형수, 최한나 (2009). 청소년의 위기 중복 유형 탐색: 서울, 인천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21-536.
- 김환, 이장호 (2006). **상담면접의 기초**. 서울: 학지사
- 노성덕 (2008). **찾아가는 상담**. 서울: 학지사
- 노성덕, 이대형 (2011).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개정판)**. 한국청소년상담원.
- 류진아 (2007). 위기청소년의 문제상황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2), 59-71.
- 박병채 (2010). **청소년-상담자 작업동맹과 부모-상담자 작업동맹이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2014). **개인, 가족, 학교요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선, 강기정 (2008). 부모교육실천을 위한 부모코칭 모형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5(2), 27-55.
- 박애린 (2005). **학교부적응청소년 이해증진 부모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자영 (2009). **아동상담자가 부모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우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한샘, 공윤정 (2011). 청소년동반자의 윤리적 갈등경험과 대처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2(3), 771-791.
- 박한샘, 고은영 (2009). 상담일반: 청소년동반자 활동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0(4), 1971-1994.
- 박현진, 송미경, 김은영 (2011). **위기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가출경험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배주미, 양재원, 조영미, 김정은, 최요한 (2012). **인터넷중독 청소년 개인상담 프로토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배주미, 이은경, 허지은 (2009). **가출청소년을 위한 단기쉼터 초기사정 매뉴얼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백외조, 이종만 (2011). 인간중심상담을 활용한 위기청소년의 부모상담에 대한 사례연구. **심리 행동연구**, 3(1), 1-15.
- 서선진, 송원영 (2012). 가출청소년의 가출 결정 과정에 나타난 부모-자녀관계 유형 분류. **청소년상담연구**, 20(1), 141-157.
- 서은주, 이현림 (2008).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9(3), 1117-1135.
- 소수연, 김정민, 양대회, 안지영, 김승윤, 유준호, 지수연, 이현숙 (2013).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손수향, 배근택, 이영호 (2007). 교류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가족 기능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4(1), 1-17.
- 송원영, 송미경, 노성덕, 이대형, 김호정, 박선경, 김현진 (2011). **청소년동반자 지원서비스가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 여성가족부.
- 신숙재, 한정원 (2000). 아동 중심 놀이치료의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3(1), 49-57.
- 신윤정 (2004).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관련 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현정 (2008). 아동상담에서의 어머니 변화 - 치료놀이(Theraplay)를 중심으로: 아동상담에서의 어머니 변화. **가족과 문화**, 20(2), 65-97.
- 심영숙 (2012). **언어치료에서 부모상담에 대한 어머니와 상담자의 인식연구**. 목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심혜숙, 광미자 (1997). 비행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 보호 관찰수감명령 대상자의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유형학회**, 4(1), 1-28.
- 신혜영, 최해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5(2), 295-307
- 아주경제 (2015). '한국 이혼율 34개 OECD 국가 중 9위... 이혼 사유 1위 '빈곤'', 2015.05.17. <http://www.ajunews.com/view/20150515140611696>
- 양종국, 김충기 (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도 청소년사업 안내II**.
- 여성가족부 (2012). **2012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 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성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1), 1-17.
- 오경자, 이기학, 배주미 (2006).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개정판)**. 국가청소년위원회.
-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빈곤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53-71.
- 오경자, 이기학, 지승희 (2005).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청소년위원회
- 오익수, 김춘자, 김철 (2007). 초등학교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 아동 상담프로그램의 효과.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1(3), 307-316.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 유미숙 (1997). **놀이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상조사.
- 유성경 (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3), 81-106
- 유정이, 금명자, 이지은, 이호준, 김수리 (2006). 이혼경험에 대한 질적분석-부모의 경험과 부모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57-176.
- 이경래, 김정빈 (1994). 알코올 중독 환자 자녀들의 알코올 중독 위험성과 불안, 우울 및 부모-자녀 결합형태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X**, 33(5), 1063-1994.
- 이경미, 이인수 (2013). 분노 다루기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사티어 변형 체계치료모델을 토대로.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21(2).
- 이규리 (2004). **장애청소년 어머니의 삶의 질 구조분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 (2009). 청소년기 경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병렬적 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가족**

복지학회지, 27, 243-266.

- 이상복 (2000) **청소년방황에 대한 교육현장론적 접근**. 협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한 (2002). 상담장면에서의 부모양육행동훈련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79-197.
- 이소희 (2006).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부모코칭. **한국가족복지추계학술대회**.
- 이윤경, 배소영, 권유진, 김민정, 박혜진, 서정희, 윤효진, 이옥분, 이은주, 정정희, 정한지, 표화영 (2010). **언어치료 임상실습: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이윤주, 김계현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이용택, 이은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0(1), 55-70.
- 이장호(2005).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1999).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문사
- 이재연, 김정희 (1993).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이재택 (2013). **자녀의 학업동기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 (2009). 탈성매매 청소년의 자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6(9), 269-290.
- 이현림 (2000). **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 이현림, 류현정, 김지혜 (2007). MBTI를 활용한 적극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2), 533-547.
- 이혜자 (2008). 아동 미술치료에서의 부모상담 현황 및 부모상담에 대한 치료사와 부모의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2), 17-38.
- 임고은, 이동귀 (2014). 성폭력 유경험 어머니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성폭력 피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3), 1009-1034.
- 임성택, 주동범 (2009). 초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생과 학부모 특성과 교사효능감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3), 39-57.
- 장대운, 남상인, 오익수, 김혜숙, 금명자, 김진희 (1999). **청소년 부모상담과 교육**.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미경 (2011).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77-297.



- 장정연 (1998). **청소년 약물남용과 가족변인과의 관계연구 : 약물남용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 (2003).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쉼터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255-281
- 전혜리 (2010). 아동·청소년 상담에서의 부모상담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시설행정**, 8(4), 3-20.
- 정교영, 신희천 (2011).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03-634.
- 정유정 (2011) **청소년동반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우 (2013).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가출경험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영(2010). **놀이치료자 교육과정에서 부모상담 교육실태 및 요구도 조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 이호준, 김하나 (2012).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정희정 (2003). **놀이치료 종결과 관련된 변인의 탐색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 (2004).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경기: 21세기사. Kashani,J.H,M& Allan, W.D.(1998).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CA: Sage publication
- 주선영, 김광웅 (2005).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현황 및 부모상담에 대한 상담자, 부모의 인식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8(1), 49-60.
- 최명선, 김광웅 (2005). 아동상담에서 부모와 치료자간 치료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6(3), 111-125.
- 최선미 (2003). **놀이치료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치료적 동맹**.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박운영, 김은영, 배주미 (2011). 청소년 탈성매매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9(1), 183-202.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청소년상담사 2급 부모상담교재**.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2007 청소년동반자 3차 직무연수 자료집 1**.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청소년 부모상담**(청소년상담학 시리즈3).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상임 (2010).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 (2008). **청소년학**. 서울: 학지사
- 한희정 (2010). **약물남용청소년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강의 (1999). 아동학대의 결과와 후유증.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21회 학술세미나집**, 25-39.
- 홍나미 (201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한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1(2), 37-58.
- 홍나미 (2012).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2), 7-30.
- 황순길, 손재환, 전연진, 송미경, 김태성, 명재신, 양민정, 허미경, 김남희 (2014).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유형에 따른 상담요구 및 성공적 상담을 위한 요인 도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9(2), 73-89
- Adams, G. R., Gullotta, T., & Clancy, M. A. (1985). Homeless adolescents: A descriptive study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runaways and throwaways. *Adolescence*.
- Adelman, H. S., Csikzentmihalyi, M. , & Larson, R. (1984). *Being adolescent*. New York : BasicBooks.
- Armbruster, P., & Kazdin, A. E. (1994). Attrition in child psychotherapy. In T. H. Ollendisk & J.Prinz(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16, NY: Guilford.
- Arnold, L. E. (1978). *Helping parents help their children*. NY:Brunner/Mazel.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9).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4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 Boyle, M. H., & Pickles, A. (1997).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ratings of emotional disorder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8), 981-992.
- Burden, R. L. (1991). Psycho-social transitions in the live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handicapping condition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4, 331-343.

- Carlson, S. (1991). Executive behaviour. *Rivista Internazionale di Scienze Sociali*, 23(3), 280~282.
- Cates, J., Paone, T. R., Packman, J., & Margolis, D. (2006). Effective parent consultation in play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5(1), 87-100.
- Cook, R. E., & Armbruster, V. B. (1983). *Adapting early childhood curricula: Suggestions for meeting special needs*. St. Louis: C. V. Mosby.
- Edleson, J. L. (1999). Children's witnessing of adult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8), 839-870.
- Erk, R. R. (2008). *Counseling Treatmen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SM-IV-TR Disorders, 2nd*. Prentice Hall.
- Flasher, L. V. & Fogle, P.T. (2004). *Counseling skills for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nd audiologists*. Clifton Park, NY: Thomson and Delmer Learning.
- Galinsky, E. (1987).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Da Capo Press.
- Ganong, L. H., & Coleman, M. (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s*. Sage Publications, Inc.
- Hawley, K. M., & Weisz, J. R. (2005). *Youth versus parent working alliance in usual clinical care: Distinctive associations with retention, satisfaction and treatment outcom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 117-128.
- James, O. (1997). *Play therapy: A comprehensive guide*. Northvale, NJ.: Jason Aronson.
- Kazdin, A. E. (1997). Practitioner review: Psychological treatment for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2), 161-178.
- Knell, S. (1993). *Cognitive-behavioral play therapy*. Northvale, N.J.: Jason Aronson.
- Kottman, T. (1995). *Partners in play: An Adlerian approach to play therapy*.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Kottman, T. (2003). *Partners in play: An Adlerian approach to play therapy(2nd ed.)*. Alexandria, VA: ACA Press.
- Kristin, M. Hawley (2002). *The therapeutic working alliance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therap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Landreth, G. L. (2002). *Play therapy: The art of the relationship (2nd ed.)*. New York, NY: Brunner-Routledge.
- Lipsey, M. W., & Wilson, D. B. (1998). *Effective intervention for serious juvenile*

*offenders: A synthesis of research.*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Crime & Just*, 7, 29.
- Matthew R. Sanders (1999).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Towards an Empirically Validated Multilevel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Strategy for the Prevention Behavior and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2), 71-90.
- McGuire, D. K. & McGuire, D. E. (2008).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김광웅, 강은주, 진화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Muck, R., Zempolich, K.A., Titus, J.C., Fishman, M., Godley, M.D., & Schwebel, R. (2001). An Overview of the Effectiveness of Adolescent Substance Abuse Treatment Models. *Youth & Society*, 33, 143-168
- Nicoll, W. G. (1999). *Interventions and Strategi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 R. Watts & J. Carlson (Eds.), *Brief therapy strategies and techniques: An integrative framework* (pp.15-30). Philadelphia: Accelerated Development.
- O'Connor, K. J. (2000). *놀이치료 입문*. 송영혜(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Rapp-Paglicci, L. A., Dulmus, C. N., Wodarski, J. S. (2004). *Handbook of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J: John Wiley & Son.
- Ricky Greenwald (2002). *Child Trauma Handbook*, 마음을 다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핸드북. 정성훈, 정문선 공역. 서울: 학지사
- Rohr, M. E. (1997). *Adolescent runaway behavior*. New York: Garland Publishing.
- Saunders, S. M., Resnick, M. D., Hoberman, H. M., & Blum, R. W. (1994). Formal help-seeking behavior of adolescents identifying themselves as having mental health problem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3(5), 718-728.
- Schaefer, Charles E. (2006). *놀이치료의 기초*. 김은정(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Seligman, J. (1985). Equal protection in shareholder voting rights: The one common share, one vote controversy. *Geo. Wash. L. Rev.*, 54, 687.
- Sells, S. P. (1998). *Treating the tough adolescent: A family-based, step-by-step guide*. Guilford Press.
- Slesnick, N. (2004). *Our runaway and homeless youth: A guide to understanding*.

Greenwood Publishing Group.

- Stagg, V., Wills, G. D., & Howell, M. (1989). Psychopathology in early childhood witnesses of family violenc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9*(2), 73-87.
- Stanton, M. D., & Todd, T. C. (1981). The family therapy of drug addiction.
- Sunseri, P. (2003). Predicting treatment termination due to running away among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Residential Treatment for Children and Youth, 21*(2), 53-60.
- Webb, N. B. (1999). *Play therapy crisis intervention with children*. Guilford Press.
- Weisz, R., Amanda Jensen Doss, & Kristin M. Hawley (2005). Youth Psychotherapy Outcome Research: A Review and Critique of the Evidence Ba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6*. 337-363.
- Wilinson (1974). The broken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Scientific explanation or ideology. *Social problems, 21*(5), 726-739.
- Yeh, M., Weisz, J. R. (2001). Why Are We Here at the Clinic? Parent-Child (Dis)Agreement on Referral Problems at Outpatient Treatment Ent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6), 1018-1025.



## 부 록

1. 청소년동반자 대상 예비조사 설문지
2. 청소년동반자 대상 부모상담 설문지
3. FGI 질문지(청소년동반자용)
4. FGI 질문지(부모용)











11.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과 비교할 때, 청소년동반자 상담에서 부모(주양육자) 상담의 중요성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훨씬 덜 중요하다.                      ② 덜 중요하다.                      ③ 비슷하다.  
 ④ 더 중요하다.                              ⑤ 훨씬 더 중요하다.

12. 귀하의 부모(주양육자) 상담의 주된 진행 방식은 어떠합니까?

- ① 가급적 청소년 상담 매 회기마다 부모(주양육자) 상담을 병행  
 ② 청소년 상담을 몇 회기 진행한 후, 부모(주양육자) 상담을 따로 진행  
 ③ 상담 초기와 종결 시점에만 부모(주양육자) 상담을 진행  
 ④ 부모(주양육자) 상담은 거의 진행하지 않음

※ 다음은 청소년동반자가 대상 청소년 부모(주양육자)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이런 경험이		현재의 귀하가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있다	없다	전혀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보통 이다	어렵다	약간 어렵다	완전히 어렵다
1	부모의 생계, 직업적 사유 등으로 부모를 만나기 어렵다.			1	2	3	4	5	6	7
2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서 자녀의 문제보다 생계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6	7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서 매우 권위적이다.			1	2	3	4	5	6	7
4	부모가 상담시간을 자주 변경한다.			1	2	3	4	5	6	7
5	부모가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6	7
6	부모가 센터에만 알리고 상담을 종결한다.			1	2	3	4	5	6	7
7	부모가 자녀 혹은 청소년동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 상담의 종결을 요구한다.			1	2	3	4	5	6	7
8	부모가 상담시간을 미루는 등 상담에 불성실하게 임한다.			1	2	3	4	5	6	7
9	부모가 상담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			1	2	3	4	5	6	7
10	부모가 상담의 모든 성과를 청소년동반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1	2	3	4	5	6	7
11	부모가 상담 중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청소년동반자의 잘못으로 돌린다.			1	2	3	4	5	6	7
12	부모가 자녀문제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2	3	4	5	6	7

번호	문항	이런 경험이		현재의 귀하가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있다	없다	전혀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보통 이다	어렵다	약간 어렵다	완전히 어렵다
				1	2	3	4	5	6	7
13	자녀와 비밀스럽게 다른 상담내용을 부모가 듣고 싶어한다.			1	2	3	4	5	6	7
14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자녀를 통제하고자 한다.			1	2	3	4	5	6	7
15	청소년동반자가(본인이) 부모상담장면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			1	2	3	4	5	6	7
16	청소년동반자가 부모 앞에서 상담자로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17	상담자로서 권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18	청소년동반자로서 상담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19	부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1	2	3	4	5	6	7
20	청소년동반자와 부모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1	2	3	4	5	6	7
21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의 어려움에 압도당한다.			1	2	3	4	5	6	7
22	청소년동반자가 부모상담 중 부모에게 역전이가 일어난다.			1	2	3	4	5	6	7
23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한다.			1	2	3	4	5	6	7
24	청소년동반자가 양육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25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도우미로 인식하는 등 청소년동반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1	2	3	4	5	6	7
26	부모가 작은 일도 자주 질문하며 청소년동반자에게 많이 의존한다.			1	2	3	4	5	6	7
27	부모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옳다고 우긴다.			1	2	3	4	5	6	7
28	부모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한다.			1	2	3	4	5	6	7
29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에 지나친 죄책감을 갖는다.			1	2	3	4	5	6	7
30	부모가 자녀문제보다 부모 자신의 문제를 도움 받고 싶어한다.			1	2	3	4	5	6	7
31	부모가 알콜중독, 이혼, 부부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6	7
32	부모의 지적수준이 낮다고 판단된다.			1	2	3	4	5	6	7
33	부모의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다.			1	2	3	4	5	6	7
34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35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권유해도 받지 않는다.			1	2	3	4	5	6	7

번호	문항	이런 경험이		현재의 귀하가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있다	없다	전혀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어렵다	약간 어렵다	완전히 어렵다
36	부모가 피해의식이 높아서 청소년동반자의 행동을 오해한다.			1	2	3	4	5	6	7
37	부모가 청소년동반자에게 반말을 한다.			1	2	3	4	5	6	7
38	부모가 청소년동반자의 말을 무시한다.			1	2	3	4	5	6	7
39	부모가 청소년동반자를 무시하는 비언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1	2	3	4	5	6	7
40	부모가 청소년동반자에게 화를 낸다.			1	2	3	4	5	6	7
41	부모가 청소년동반자 개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본다.			1	2	3	4	5	6	7
42	자녀가 부모상담을 거부한다.			1	2	3	4	5	6	7
43	회기가 제한적이므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한다.			1	2	3	4	5	6	7
44	다문화 가정 부모와 상담한다.			1	2	3	4	5	6	7
45	부모가 청소년동반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복지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한다.			1	2	3	4	5	6	7

※ 각 문항별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고,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에 따라 이후 개방형 질문 중 해당하는 것 한 가지에 구체적이고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보통이다'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에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부모(주양육자)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상담에 참여하여 상담동기가 낮다.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약간 어렵지 않다	③ 어렵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어렵다	⑥ 약간어렵다	⑦ 완전히 어렵다
-------------	-------------	----------	--------	-------	---------	-----------

1-1. ①, ②, ③을 선택하였다면, 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1-2. ⑤, ⑥, ⑦을 선택하였다면, 적절한 개입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2. 부모(주양육자)가 자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약간 어렵지 않다	③ 어렵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어렵다	⑥ 약간어렵다	⑦ 완전히 어렵다
-------------	-------------	----------	--------	-------	---------	-----------

2-1. ①, ②, ③을 선택하였다면, 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2-2. ⑤, ⑥, ⑦을 선택하였다면, 적절한 개입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3. 상담 중, 성과가 부모(주양육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호소한다.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약간 어렵지 않다	③ 어렵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어렵다	⑥ 약간어렵다	⑦ 완전히 어렵다
-------------	-------------	----------	--------	-------	---------	-----------

3-1. ①, ②, ③을 선택하였다면, 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3-2. ⑤, ⑥, ⑦을 선택하였다면, 적절한 개입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4. 부모(주양육자)가 쏟아내듯이 자기 이야기만 과도하게 한다.(말을 길게 하는 부모의 말을 끊지 못한다.)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약간 어렵지 않다	③ 어렵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어렵다	⑥ 약간어렵다	⑦ 완전히 어렵다
-------------	-------------	----------	--------	-------	---------	-----------

4-1. ①, ②, ③을 선택하였다면, 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4-2. ⑤, ⑥, ⑦을 선택하였다면, 적절한 개입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5. 부모(주양육자)가 본인 대신 청소년동반자에게 자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주기를 요구한다.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약간 어렵지 않다	③ 어렵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어렵다	⑥ 약간어렵다	⑦ 완전히 어렵다
-------------	-------------	----------	--------	-------	---------	-----------

5-1. ①, ②, ③을 선택하였다면, 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5-2. ⑤, ⑥, ⑦을 선택하였다면, 적절한 개입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6. 부모(주양육자)가 청소년동반자가 제시하는 의견(양육태도, 의사소통 방법 등)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일방적인) 양육태도를 고집한다.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약간 어렵지 않다	③ 어렵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어렵다	⑥ 약간어렵다	⑦ 완전히 어렵다
-------------	-------------	----------	--------	-------	---------	-----------

6-1. ①, ②, ③을 선택하였다면, 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6-2. ⑤, ⑥, ⑦을 선택하였다면, 적절한 개입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7. 부모(주양육자)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약간 어렵지 않다	③ 어렵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어렵다	⑥ 약간어렵다	⑦ 완전히 어렵다
-------------	-------------	----------	--------	-------	---------	-----------

7-1. ①, ②, ③을 선택하였다면, 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7-2. ⑤, ⑥, ⑦을 선택하였다면, 적절한 개입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8. 자녀와 부모(주양육자)가 문제 및 상황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한다.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약간 어렵지 않다	③ 어렵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어렵다	⑥ 약간어렵다	⑦ 완전히 어렵다
-------------	-------------	----------	--------	-------	---------	-----------

8-1. ①, ②, ③을 선택하였다면, 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8-2. ⑤, ⑥, ⑦을 선택하였다면, 적절한 개입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9. 부모(주양육자)를 만날 때 청소년동반자(본인)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생긴다.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약간 어렵지 않다	③ 어렵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어렵다	⑥ 약간어렵다	⑦ 완전히 어렵다
-------------	-------------	----------	--------	-------	---------	-----------

9-1. ①, ②, ③을 선택하였다면, 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9-2. ⑤, ⑥, ⑦을 선택하였다면, 적절한 개입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설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프티콘을 수령하실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H.P \_\_\_\_\_

\*전화번호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고, 기프티콘 수령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부록 3] FGI 질문지(청소년동반자용)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FGI 질문(청소년동반자용)

질문	질문 내용
시작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분이 현재 속해있는 기관과 부모상담 경험을 포함한 상담경력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습니까?</li> </ul>
소개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상담은 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li> <li>• 청소년동반자로서 내담자의 부모를 상담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li> </ul>
전환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동반자의 부모상담은 일반 성인상담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청소년동반자 상담 대상 청소년의 부모상담과 센터로 내방한 청소년 내담자의 부모상담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핵심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상담을 하면서 경험하신 어려운 점이나, 당황스러웠던 일은 무엇인가요?</li> <li>• 부모상담을 하면서 경험하신 어려움, 당황스러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li> <li>• 청소년동반자와 내담자의 부모 간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 상담 중에 최근에 경험하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동반자들이 부모상담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모상담 매뉴얼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꼭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li> </ul>
종결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상담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관련하여 더 제안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li> </ul>

[부록 4] FGI 질문지(부모용)

청소년동반자 부모상담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FGI 질문(부모용)

질문	질문 내용
시작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간단한 소개 및 어떤 어려움으로 청소년동반자 상담을 받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받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상담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li> <li>• 청소년동반자선생님은 주로 어떻게 상담을 해 주시던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동반자 상담이 다른 일반상담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핵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로서 상담을 통해 가장 도움을 받으신 것은 무엇인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로서 상담을 받으면서 느낀 어려움이나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을 받으시면서 최근에 경험하신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혹은 가장 힘들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li> </ul>
종결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동반자 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li> <li>• 자녀에 대한 상담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li> </ul>

# Abstract

---

## Development of Parents Counseling Protocol for Youth Companion

Youth Companions (YCs) are the psychological counselors who visit their clients. They are, especially, the qualified and experienced counselors of the youth counseling. YCs have played the professional interven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youth in crisis from 2005, the year that YC Program was started as a pilot project. Youth in crisis such as suicidal problems, school violences, running away from home, single parent home, and divorced or reconstructed families take a high percentage of the YC clients. Therefore, counseling involvement of their parents in YC program is necessarily required. However, counseling intervention of the parents has not been systematically built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difficulties of YCs in parent counseling and to develop the efficient parental intervention based on features of youth at risk. This study focused on the applicability of the parent counseling for YC. To do this, research analysis was preceded, and it identified the difficulties of the parent counseling through YC surveys and FGI(Focus Group Interview).

The 'Parent Counseling Protocol for Youth Companion' was developed, and the development plan of the YC program was suggested through these analyses. To do this, it identified the difficulties of the parent counseling through nationwide YC surveys and in-depth parent and YC interviews. As a result, the consequent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bove study are the following processes.

First, the YC considered parent counseling of the YC clients is very important compared to the general youth counseling. The study categorized the difficulties of the parent counseling into the several factors; the YC, parents, and the environment. The feeling of the counselor's lack of the competency of the parent intervention is the YC factor. The parent factors are the personal difficulties due to the unsolved psychological problems and

the lack of necessary of the counseling, and as the last one, the limited counseling sessions are the environment facto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level of education of the YC, but 20-30 age YCs felt more difficult for the parent counseling than 40-50 ages YCs, and single or no children YCs also felt difficult than married YCs.

Second, it represents the parent counseling shortens the counseling session of YC. The parent intervention of the YC counseling is necessary in the younger and higher crisis level of the youth, and in the lower counseling motivation of the parents. YCs felt difficult to the YC clients having these characteristics such as coming to the session with high crisis level but having low supports, high level of feeling of disappointment and having psychological problems of parents, limited counseling sessions, and having no parent counseling experts or co-partners. Meanwhile, it represents counseling professionalism, reliable feeling(trust) toward YC, successful first interview, and specific and practical educational trainings are effective in YC counseling.

Thirdly, according to the parents' in-depth interviews, they stated the they relied on the YC working hard to bring uncooperative parents to the counseling session. The counseling intervention which youth, parents, and counselor work together in one was effective, and they also agreed that the youth counseling intervention worked when parents changed. YCs reported they felt confident when they analyzed parents' characters, understood specific parenting skills, and acquired professional authorities and reliances.

Finally, 'Parent Counseling Protocol for Youth Companion' was developed by research analysis and the above studies. This protocol was consisted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Starting parent intervention' presented preparation for the parent interven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youth and parents, The second chapter, 'Doing parent intervention', proposed the parent intervention process categorized as parent counseling, parent coaching, and parent education. The third chapter, 'Understanding special subject' presented the parent interven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 family and youth crisis types. The fourth chapter, 'Managing difficult situation' presented the difficulties of parent intervention and the coping plans for the YC reported by the survey. The fifth chapter, 'Application information' attached the applicable information and materials for the parent intervention in practice.

This study purposed to develop the Parent Counseling Protocol for Youth Companion. It

would offer high quality counseling service and move up the level of parent intervention skill of YC. This study, however, is the part of the long term study, so that, would suggest the further researches verifying its effectiveness.